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본사 창립 10주년 기념식 100여 내외빈 찾아 축하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 맞아 발자취 회고 사실 보도, 공정보도, 지역사회 언론 역할 다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코리아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21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클라인 오디오리움에서 기념식을 갖고 더욱 공정한 보스톤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엄성준 총영사,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남궁연 보스톤한인회 재산관리위원장, 안병학 전동북부한인연합회 회장, 이병철 전 한인회장,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병국 보스톤예술협회 회장, 이현희 과기협 회장, 김우혁 재향군인회 회장, 이은주 국제선 회장, 이학재 대한체육회장 등 100여명의 한인사

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보스톤코리아 창립을 축하했다.

정한웅 보스톤코리아 디자인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축사를 담당한 엄성준 총영사,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김경원 한인회장은 보스톤코리아의 10년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지난 10년동안 7년 이상 칼럼을 지속적으로 기고해온 고 백린, 신영각, 김은한, 신영, 정준기 칼럼니스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고 백린 칼럼니스트는 숙환이 악화

되기 전인 2014년 11월까지 한국의 규장각 도서와 한국 역사에 대한 칼럼을 꾸준히 기고했다. 보스톤 이민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고 백린 칼럼니스트는 올해 9월 30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공로패는 23일 미망인 최선경 여사에게 전달됐다.

칼럼 인을 격주간으로 집필해오고 있는 신영각 칼럼니스트는 뇌졸중으로 인해 평상시 사용하던 오른손이 마비되자 왼손을 사용해 쓰기를 연습해 매격주 16-18매의 원고를 보내고 있다. 신영각 칼럼니스트는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시절 고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예우했던 경제부 신문기자 4인중의 한 명

>>2면으로 계속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대표(사진 우측)가 보스톤코리아 교육칼럼을 연재한 정준기 원장(사진 좌측)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law.com

보스톤에서 가장 빠른 여행

From \$893
ONLY 1 STOP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보금자금을 새롭고 유용하게 쓰자. 보금자금을 돌려받으세요.
*보금자금은 1년 이상 저축한 금액을 돌려받으세요.
*항공기종은 30년 1년 기종만, 항공기종은 1년 30년 기종만.
*비행일정, 기종일정, 실시간 예약상황 등서 한국 항공권 가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검색하거나 전화주세요.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전화번호: 617-424-8956 / 617-424-8956
*전화번호: 617-424-8956 / 617-424-8956
*웹사이트: www.lace-travel.com *주소: 보스톤, MA
*424-8956 / 617-424-8956 (24시간, 24시간 운영 센터)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ames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의 주요 발자취 돌아보기

- 2005년 3월 10일 창간호 20면 발행
보스톤코리아이란 이름으로 창간 뉴튼 센터 보스톤 정유학원 내
- 2005년 7월 1일 보스톤 최초 한인 컬러 신문 발행
- 2005년 11월 1일 보스톤으로 이전
- 2006년 5월 보스톤코리아 닷 넷과 보스톤코리아 닷컴 합병
- 2006년 9월 8일 통합성 유지 위해 신문도 보스톤코리아로 개명
- 2007년 10월 보스톤코리아 전 세계 한인 신문 중 5대 신문으로 선정
- 2009년 9월 8일 보스톤코리아 문화센터 개강
무료 실용영어, 포토샵, 사진강좌, 회계강좌, 노래교실, 은행업무 강좌, 의료보험 체계 설명회 등
- 2011년 5월 제 1회 대학 진학 무료 박람회 개최- 하버드대 한인 학생회와 공동 주최
- 2012년 3월 통합 생활정보 사전 지향한 보스토티안 1호 발간
제작 기간 2년 의료, 교육, 관광, 생활, 주택정보 등 망라
- 2012년 6월 제 2회 대학 진학 박람회 개최
- 2013년 12월 보스토티안 2014(의료 및 교육편) 발간
- 2013년 미주 6개 도시 한인 신문사와 네트워크 구축
LA 헤럴드 경제, 달라스 뉴스코리아, 애틀란타 조선일보, 시카고 교차로, 뉴욕 교차로, 시애틀 교차로
- 2013년 4월 미주 8개 한인 신문사와 공동으로 레이디 경향 발간
- 2013년 4월 엔티비 Tbo Play로 한인 인터넷(P) TV 사업국 시작
- 2014년 1월 2만여명의 회원에게 이메일 뉴스 발송 시작
- 2015년 10월 보스톤 지역 최고 한식 업체 독자투표 선정-서울설렁탕
- 2015년 11월 21일 보스톤코리아 10주년 기념식



보스톤 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료

▶▶1면에 이어서 이었다. 출간되었다.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한국 일부에서는 의사인 본업보다는 역사 칼럼니스트로 더 잘알려져 있을 정도로 새로운 고증 역사발굴에 관심이 많은 칼럼니스트다. 그의 야마구치 현의 무법자들 칼럼은 한국의 외교 전문가가 인용했었다고 한다.

신영의 세상스케치를 맡고 있는 신영 칼럼니스트는 시인으로서 가벼운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무려 10여년간 칼럼을 실어온 본지 최장수 칼럼니스트다. 벌써 그의 칼럼은 찰스강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권의 산문집이 출간됐다. 현재 한국방문중이어서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준기 칼럼니스트는 교육 칼럼을 통해 미국내 유명 사립대학, 유명 중고 사립학교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칼럼을 8년에 걸쳐서 연재했던 보스톤교육원 원장이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칼럼중의 하나였다. 이미 한국에서 책으로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대표는 “사실 신문을 운영해 오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많지만 늘 칼럼으로써 보스톤코리아를 빛내준 칼럼니스트들에게 이렇게나마 보답하길 원했다” 고 말하고 “음으로 양으로도 와주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보스톤코리아의 10년 발자취>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2005년 3월 10일 창간호부터 시작해 보스토티안 발간, 보스톤코리아 문화원, 교육박람회 등의 주요 사업을 돌아 보았다.

장 대표는 “가장 지역사회에 집중하는 로컬 신문이 가장 세계적인다” 라는 근본적인 신문운영방향과 “보스톤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이란 신문의 목표를 좌우 날개로서 보스톤 코리아의 또 다른 1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역대 최다 조회 기사 Top 10


| | |
|---|-------------|
| 01위: 뉴스위크 MA 최우수 11개 고교 선정 (2011년 6월) | 총 119,228 회 |
| 02위: 한, MA 운전면허 상호 교환 합의 (2011년 8월) | 총 104,878 회 |
| 03위: H마트 이중라벨 사건 소비자 힘 입증했다 (2012년 1월) | 총 96,971 회 |
| 04위: 올해도 랍스터 풍년, 저렴한 가격 계속된다 (2013년 7월) | 총 92,976 회 |
| 05위: 보스톤 수돗물 대란, '물 끓여 마셔야' (2010년 5월) | 총 89,680 회 |
| 06위: 김제동 '특별한' 하버드 법대 강연 (2010년 4월) | 총 89,144 회 |
| 07위: Dings Toongs in America (2011년 9월) | 총 67,763 회 |
| 08위: 세라 페일린 방문한 <보스톤 티파티> 현장 가보니 (2010년 4월) | 총 57,491 회 |
| 09위: "안녕들 하십니까" 보스톤에서도 (2013년 12월) | 총 57,270 회 |
| 10위: 덩스 똥스 in 보스톤 (2011년 9월) | 총 49,966 회 |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사진으로 보는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 기념식



사진 좌측으로부터 엄성준 총영사, 김은한 박사, 김영원 보스톤한인회장이 보스톤 코리아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 나은 언론이 될 것을 당부했다.



21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아발론 힐 클라인 오디오리움에서 열린 보스톤 코리아 10주년 기념식에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난 10년간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스톤 코리아는 늘 한인들의 입장에서 귀기울이고 말하겠습니다. 사실보도,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는 물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운영지침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일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식 광경을 칼럼 인을 연재하고 있는 신영각 칼럼니스트(사진 가운데)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대표가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홍경자 보스톤한인교회 장로가 신영각 칼럼니스트를 대신해 수상했다. 우측은 김은한 칼럼니스트의 수상 모습



보스톤 최고 한식당으로 선정된 서울설령당 박천우 대표(사진 좌측)가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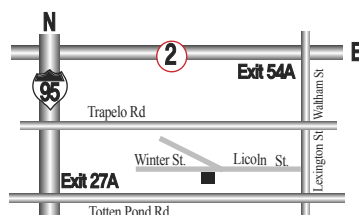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Starting September 12, 2015

| Class | Time |
|-------------------------|-----------------------------|
| PSAT / SAT Prep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
| SAT Prep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
| PSAT /SAT Prep | 3:30 PM - 5:30 PM Saturday |

| | |
|---------------------|--------------------------------------|
| Individual Tutoring |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좌측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우석, 최영석 (CIE 비즈니스 호스트), 스티븐 김, 김연진, 류현경, 정선진, 성기주 변호사

보스톤 한인 변호사회 비즈니스와 교류 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변호사들의 모임인 '보스톤 한인변호사회' 는 지난 18일 케임브리지 소재 코리아 나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월담 소재 교육컨설팅 회사인 CIE의 최영석(Karl Choi) 씨를 초청해 변호사회와 한인 비즈니스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IE는 한국 중국 등의 학생들을 미국내 사립 및 공립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입학에 연결해주는 교육컨설팅 회사이다. 최영석 씨는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당시 변호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보스톤 한인변호사회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친목을 다지고 지역 비즈니스와 교류 협력을 위해 2012년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가 2012년부터 지향해온 취지

는, 이 지역의 한인 변호사회가 동일 지역 교민들과 비즈니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는 것으로서, 지난 2년간 지역 개개인 변호사들간의 친목 및 결속을 다졌고, 올해 처음으로 지역 비즈니스와의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가 굳건히 자리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을 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지역내 학교 한인 학생회, 경제인 단체와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 교류를 희망하는 사업체 또는 단체는 korean-lawyers.us@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변호사회는 아직 참여치 않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기모임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에는 12월에 마지막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2016년에는 1~2월에 모임을 갖는다.

editor@bostonkorea.com

한인회 후원, 노인회 뉴욕 나들이 다녀와

보스톤 한인회와 민주 평통이 공동 후원해 나들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회장 유영심)는 21일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뉴욕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보스톤 한인회와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가 후원해 이루어 졌다.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은 뉴욕까지 동행해서 노인회원들이 병천 순대에서 점심을 먹고 짬짬방에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했다.

한인회보 보도에 따르면 노인회 유영심 회장은 "보스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짬짬방에 들어

가 묵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왔습니다. 여행을 위해 애써주신 김경원 회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한선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감사를 전했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 메드포드 소재 청기와에서 정기이사회 모임을 개최하며 오는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정기총회 및 국제선효도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bostonkorea@hotmail.com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원 30여명은 보스톤 김경원 한인회장의 후원으로 뉴욕 나들이 길을 나섰다. 위 사진, 버스를 타고 뉴욕을 향하고 있는 노인회 회원들. 아래사진, 병천자매 순대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노인회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법 찾는다

총영사관 3차 창조경제 포럼 14일, 크라운 플라자 호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 보스톤총영사관은 오는 14일 월요일 4시 30분 뉴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올해로 제 3차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해 “한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또한 기술창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창조경제와 한인비즈니스 활성화”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의 사회는 뉴잉글랜드 생명과학카운슬(KABIC)의 남성한 이사가 담당하며 패널로서 안병학 해외한인무역인협회(OKTA) 보스톤 지역 회장, 이유택 BU 경영대 교수, 그리고 건설회사 영 컨스트럭션 이영호 대표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최근 한인유학생들의 감소세와 더불어 주춤거리는 한인상권, 중국계의

한인상권 진출 등 끊임없는 소규모 식품점들의 폐업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같은 외부 환경에서 한인들의 비즈니스 활로에 대한 어떤 토론을 나눌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케임브리지 소재 생명과학 벤처기업 GENOSCO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성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이현희 회장 그리고 SLIPS Technologies Inc의 공동창업자이자 기술분야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필석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기술 창업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번 3차 창조경제 포럼에 관심있는 한인들은 참가 문의 및 예약을 보스톤총영사관 나윤정 비서(yj.kcg-boston@gmail.com, 617-641-2833)에게 하면된다.

editor@bostonkorea.com



주 보스톤총영사관에 마련된 고 김영삼 대통령 조문소에 지난 24일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가족이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 이병철 전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보스톤 총영사관, 고 김 대통령 분향소 한인들 조문

주 보스톤 독일 및 일본 영사들도 조문해 눈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 보스톤한국총영사관이 국가장으로 치뤄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설치해 운영했다. 여기에는 김경원 보스톤한인회장,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등의 6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조문했다.

특히 보스톤 주재 외국 총영사관에서도 조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랄프 홀러만(Ralf Horlemann) 주보스

톤 독일 총영사가 조문했으며 일본 방문 중인 일본 총영사를 대신해 지로 우수이 주보스톤일본 총영사관 부총영사가 조문했다.

한편, 1999년 김영삼 대통령이 보스톤을 방문했었을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이병철 전 뉴잉글랜드 한인회장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총영사관은 땡스기빙데이인 26일에도 분향소를 계속 운영해 한인들의 조문을 계속 받았다.

bostonkorea@hotmail.com



제2차 창조경제 포럼의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Boston
magazine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2세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구연·동시암송대회
이혜린 동화구연 전체 대상, 이준호 시암송 전체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최한 지난 21일 토요일 2015년도 한글동화구연 및 동시암송 대회에는 50여명의 학교학생들이 참여해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낭송되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 도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외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박목월 시인의 ‘물새 알 산새알’, 노유복 시인의 ‘옛 추억’ 등 여러 주옥같은 시들이 암송되었다.

박신영 이사, 양원미 학부모회 직전회장, 남선경 교사와 2세대 교사인 오인희 교사가 심사한 한글동화구연 부문에서 고구려반의 이혜린 학생이 ‘조기 조기 조 눈깔’을 구연하여 전체대상을 차지했다. ‘올빼미 아버지 씨의 뒤죽박죽 날’을 구연한 박솔빈 학생은 금상을, 백두반 학생들은 ‘추석과 훈민정음’을 발표해 심사위원이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다.

동시부문에서는 ‘놀아줘요’를 암송한 신라1반 이준호 학생이 전체대상을, ‘마음’을 암송한 루카스아라우조 학생, ‘봄길’을 암송한 김정우 학생, ‘나그네’를 암송한 김수경 학생이 공동 금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인 남선경 교사는 심사평을 통해 “동시는 동시답게, 시는 시답게 발표하고자 하는 노력과 준비가 중요하다”고 평했다.

대회를 참관한 한 학부모는 “어른들도 쉽지 않은 시낭송을 잘하는 2



2015년도 한글동화구연 및 동시암송대회 단체 촬영한 사진



한라반의 마가렛컴스 학생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암송하는 모습

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일 교장은 “특히, 고급과정 학생들이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를 낭송할 때와 ‘한류’가 좋고 한글과 한국역사를 배우고 싶어 한국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마가렛컴스(고급2-한라반) 학생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암송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자세한 시상자 리스트는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및 사

진과 함께 게시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12월 19일 제 15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를 가진 후 2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2016년 1월 9일부터 수업이 재개한다.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2016학년도 입학 등록은 1월 9일부터 시작되며 오전/오후반 교사 지원 및 등록 문의는 남일 교장 (전화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이용하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한양대 연말 동문회 개최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양대 뉴잉글랜드 동문회는 오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웨스트우드 소재 정명상 동문회장 자택에서 2015년도 연말 동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동문모임에서는 회계 보고 및 지역발전 후원단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장 및 이사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외 저녁 식사와 컵타일을 나눌 예정이다.

심규하 동문회 총무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동문님과 또 등록을

못한 분도 많으실 것 같아 지면으로 알려 드린다”며 “많은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문들의 참가 회비는 \$50이며 문의 및 연락은 정명상 회장(781.708.3160) 또는 심규하 총무(351.201.9103)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5. 12월 5일, 오후 4시.

장소: 133 Hemlock Dr, Westwood, MA 02090 (정명상 동문 자택)

bostonkorea@hotmail.com

뉴잉글랜드 어린이 동요합창제 12월 5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회장 한순용, 이사장 박신영)가 주최하는 어린이 동요합창제가 오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된 동요를 널리 알리고 맑고 고운 동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이 동요합창제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NAKS-NE) 한국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각 지역 한국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각 학교별로 최대 2팀(1팀이 한 곡씩) 씩 참가할 수 있으며 1팀 참가시 2곡까지 부를 수 있다. 전래 동요, 창작 동요, K-pop 및 기타 한

국어로 된 모든 곡들은 발표곡으로 선정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의회 회장 (soonyhan03@gmail.com) 혹은 박지예 총무 (jiae@livee.com)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2월 5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개그맨 엄용수 사회 '보스톤의 밤' 내달 12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회장 김경원)의 '보스톤의 밤' 행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2일 오후 5시 프래밍햄 소재 웨라톤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한국의 유명 개그맨 엄용수씨가 사회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나, 가야금 김도연, 가야금 병창 원숙경, 장구 한여정, 소리사냥 등의 다양한 클래식과 국악 그리고 판소리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출연해 공연할 예정이다.

보스톤의 연주자들이 총 출동해 꾸

미는 이번 보스톤의 밤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한인회 행사이기도 하다. '보스톤의 밤'의 입장료는 \$100이며 디너와 와인이 포함된 가격이다. 티켓 판매처는 서울설령탕(Allston)과 가든하우스(Lawrence)다. 티켓 문의는 646-220-3314로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보스톤 한인회(781-933-8855)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일정

날짜 :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10시

장소 : 프래밍햄 소재 웨라톤 호텔
1657 Worcester Rd, Framingham



bostonkorea@hotmail.com



봄 항공요금 할인 사이버 먼데이 기간 피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금은 대부분이 올해 말 여행 계획을 짜고 있겠지만 항공사들은 벌써 내년 봄 승객을 유치해 올 겨울부터 소비하기를 바란다.

달리 말하면 내년 초 여행을 위한 비행기 가격은 이번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부터 시작해 크리스마스 전 주까지 가장 저렴할 것이라며 비행기 가격 할인 전문업체 호퍼(Hopper)의 예견이다.

호퍼에 따르면 올해 12월 여행을 위한 반짝 세일도 약 몇 시간 정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미 올 연말까지의 여행에 대한 예약이 거의 만료됐으므로 앞으로 몇 달 후 여행객이 적을 시점의 예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 요금 할인 전문업체인 호퍼는 매일 약 20억 비행기 가격을 비교해 약 30개의 반짝 세일가격을 정기적으로 찾아내는 업체다. 이 업체는 이번 사이버 먼데이 3주간 반짝세일이 약 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덴버, 시카고,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요금이 가장 많은 요

금할인 대상이지만 보스톤 출발도 미국 내 8위로 적지 않은 할인 요금을 발견할 수 있다.

비행사들은 지난 10월 가장 많은 할인요금을 제시했으나 이번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도 많은 할인요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애틀란타, 올랜도 등의 지역 비행기 가격 세일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낮은 기름값으로 인해 항공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15%나 저렴한 상태다.

반짝 세일은 오전 9시부터 많이 시작해서 오후 9시에 절정을 이룬다. 호퍼는 스마트폰 앱 유저들에게 반짝 세일이 있을 경우 이를 통보한다. 특히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항공사들은 가장 많은 할인을 실시한다. 따라서 수요일, 목요일 저녁 9시 경 원하는 목적지의 할인 가격을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일례로 보스톤 출발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행 왕복비행기 요금은 지난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9시에 102불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송년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여용동(경영, 82)/설명진(통계, 83) 교우 자택에서 2015년 송년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송년회 모임에서는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유병현 대외협력처장과 김선혁 국제처장이 보스톤을 방문하여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며 도약하는 고려대 현황 및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해를 돌아보고 신년을 계획하는 한편 새로운 교우를 환영하고 기존 교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 고대 교우들을 2015년 겨울 송년 모임에 초대한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길 바라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과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지난 2009년 고대 이기수 총장이 보스톤을 방문했을 당시 고대 교우회 모임에서 단체 촬영한 사진

40여 년 전에 설립되어 여러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친밀한 교류와 친목을 다지며 또한 보스톤 한인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소 및 교통 문의는 이태호

(tle0813@hotmail.com; 617-780-2999), 전인택 (ingome22@gmail.com; 857-998-3318)으로 하면 된다.

일시: 2014년 12월 10일, 오후 6:30
장소: 여용동/설명진 교우 자택
bostonkorea@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내아이 스키레슨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겨울은 길다. 해도 일찍 지는데다 눈까지 많이 온다. 팔팔한 아이들이 마음껏 발산하는 놀이 공간과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마냥 집에만 잡아 둘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보스톤의 겨울에 어울리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장비와 폼’이라는 우스갯소리를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스포츠가 바로 스키 또는 스노보드다. 폼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확한 레슨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최하다. 장비도 아이들 몸에 맞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겨울스포츠 레슨과 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다.

스키 레슨

보스톤 인근에서 스키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시즌에 앞서 계획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아이들의 주말 스키레슨을 원하는 경우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이번 보스톤코리아에서 스키레슨을 알아본 곳은 보스톤에서 차로 1시간내 거리에 있는 곳의 스키레슨이다. 아이들을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스키장으로 레슨을 보낸다는 것은 어른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Nashoba Ski 리조트 레슨

보스톤에서 서쪽으로 50분 가량 운전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내쇼바 스키리조트이다. 내쇼바 스키리조트는 웨스트포드에 위치해 있어 보스톤 서북쪽 외곽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약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www.ski-nashoba.com)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아이들 스키레슨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장비 렌탈을 포함하면 \$90을 더하면 된다.

79 Powers Road
Westford, MA 01886
(978) 692-3033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키즈 클럽 (3살 6주 레슨) \$210.00
3살 짜리 아이에게 스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레슨이다. 45분짜리인 이 프로그램은 게임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눈위에서의 균형감과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씩 6주간 배운다. 반드시 어른 1명이 함께 참가해야 한다. 주말 프로그램은 이미 접수 완료됐으며 월, 목, 금요일 예약은 아직 남아 있다.

어린이 초급자구역 스키레슨(4살-6살, \$160)

초등학교 입학전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기초적인 스키 기술을 배운다. 1시간의 그룹레슨으로 4주간 계속되며 반일 스키장 이용권도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지 요령 및 회전 그리고 균형감에 대해 배운다.

화요일과 주말 프로그램은 접수 마감됐으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프로그램이 현재 남아 있다.

체어리프트 프로그램

리프트를 타는 이 프로그램은 좀더 스키에 익숙한 스키어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리프트를 타는 동안 반드시 스키를 탈 수 있는 어른과 함께 타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들의 반일 이용권을 포함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워크데이 오후 스키레슨(6주, K-12 학년) \$225.00

6주간의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K-12)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아우

르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적인 것부터 스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까지 배운다. 주중에 하루 1시간 6주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화,수,목, 금요일 각각 평일에 3-4번의 클래스가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당일 등록을 원하는 경우 978-692-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노보드 레슨도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클래스는 화, 수, 목, 금요일 각각 평일에 3번의 클래스만 있다.

월요일 오후 스키,스노보드 레슨(5주 \$180.00)

5주간의 이 프로그램은 ,중등학교(K-12)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적인 것부터 스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까지 배운다. 매주 월요일 1시간씩 5주 동안 배운다. 1월 4일부터 시작하며 월요일 3시, 4시 15분, 5시 30분 클래스가 있다.

블루힐 스키리조트 레슨

<폴라 클럽(Polar Cubs)>

이 클래스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서 첫번째 스키 트레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로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는다.

반드시 2015년 12월 1일 시작을 기준으로 4세부터 6세 사이의 어린이만 등록할 수 있다. 이 나이대를 벗어나는 아

이들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아이들의 스키 능력을 심사해서 가장 초급인 레드, 정지 등을 배우는 기본급인 옐로우, 회전 등을 배우는 오렌지, 트레일을 타게 되는 그린 급으로 나누게 된다. 각 어린이들은 적절한 진전을 보일 때만 급이 상승되며 일정 정도 능



력이 증대되는 경우 개인 레슨을 권하게 된다.

이 레슨은 예약을 따로 받지 않으므로 빨리 가면 레슨을 받을 수 있다.

레슨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0시, 12시 오후 2시 프로그램이 있다. 가능하면 빨리 가서 스키스쿨 데스크에서 레슨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문의는 781.828.5070

레슨 시간은 75분이며 레슨 비용은 장비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42이다. 장비 렌트를 포함하면 주중에는 \$79, 주말에는 89이다.

<2015-16 멀티워크 프로그램>

스노 퍼피 스키/스노보드(4-6세)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자녀 스키레슨 가이드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레슨 \$339, 레슨 +렌탈패키지 \$449이다.

▶▶8면에 이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스키의 기본부터 가르친다. 4-6세의 아이들이 대상이며 눈, 장비, 슬라이딩 등을 배우며 눈에서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처음 배우는 아이들부터 정지와 회전을 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다.

처음 또는 초급은 레드와 옐로우 반에 편성된다. 경험있는 초급과 기초과정은 오렌지와 그린에 편성된다.

프로그램은 1월 8일과 2월 5일에 시작되며 주당 1번씩 3주간 계속된다. 각 세션은 초급 증급반이 있다. 금, 토, 일 중 10, 12시 오후 2시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비용은 레슨만 받을 경우 \$179이며 렌탈까지 포함한 경우 \$239이다. 현재 상당수 클래스가 접수 마감됐다. www.bluehillsboston.com의 e 스토어에서 바로 예약가능하며 info@bluehillsboston.com 으로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초,중등학생을 위한 방학 캠프〉 12월 크리스마스워크(7-15세)

오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연속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 나이와 스키 실력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해서 열리며 점심을 싸오는 것도 좋다. 카페테리아에서 구입도 가능하다.

비용은 레슨 \$279, 레슨 +렌탈패키지 \$349이다.

2월 프레지던트 워크 (Ages 7-15)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스키/ 장비 렌탈

스키장에서 장비를 렌탈할 경우 적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클래스 참가가 용이하다. 이 같은 불편함이 없이 내 장비처럼 한 시즌동안 스키를 빌리는 겨울 시즌 렌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매해 사이즈가 변하기 때문에 시즌 렌트가 제격이라 볼 수 있다. 시즌 렌트는 일반 스키샵 또는 스포츠 오소리티 (Sports Authority) 등에서 할 수 있다. 일반 스키샵보다는 스포츠 오소리티가 좀더 저렴했다. 일반적으로 \$70-\$150 정도이다.



스키복장

가능하면 얇은 옷을 껴입는 것이 좋다. 겉옷은 방수가 되는 스키복 또는 스노보드복을 입어야 한다. 헬멧의 경우 스키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장비점에서 구입해 쓰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모든 레슨에 고글을 필수이므로 미리 구입해야 한다.

스키나 스노보드냐

어른들이 미리 판단할 필요없이 아이들의 기호와 선택을 존중하면 된다. 레슨 프로그램에서는 스노보드에서 스키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문의해서 변경해도 된다. hsb@bostonkorea.com



사이버먼데이 최고의 할인제품을 찾는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블랙 프라이데이가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1-2주 앞당겨 시작한 것은 물론 블랙프라이데이 새벽까지 힘들게 쇼핑을 하는 것을 피하고 차라리 온라인 사이버먼데이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 여론조사 (Morpac Omnibus)에 따르면 57%가 사이버 먼데이에 쇼핑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은 35%에 불과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할인 행사인 사이버먼데이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더 많은 업체들이 사이버먼데이를 겨냥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고의 딜을 찾는 방법

사이버먼데이에 특정 카테고리의 아이템들의 할인은 블랙프라이데이보다 훨씬 좋다. 예를 들어 장난감, 전기기기, 의류, 항공요금, 신발, 화장품 등이 그 아이템에 해당한다.

또한 사이버먼데이에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전부터 쇼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67%의 할인이 업무 시간내에 온라인에 포스트된다.

Ebates가 알려주는 사이버먼데이 쇼핑 팁이다.

- 온라인 쿠폰이나 프로모션 코드를 찾아서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라
- 가장 원하는 품목을 정해놓고 최고의 가격을 비교하라
-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스토어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가장 최근의 딜 경보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제품은 블랙프라이데이나 핑크프라이데이에 더 저렴하기도 하다. 특히 전자제품은 사이버먼데이 전에 대폭할인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티비 등은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장 저렴하다. 또한 사이버먼데이 당일 해당 온라인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제품이 판매 완료되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2015년 사이버먼데이 최고의 딜

이미 온라인 회사들이 광고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GOBankingRates가 사이버먼데이 최고의 딜을 정리해 보았다.

주요 업체들의 사이버딜

아마존: 아마존의 사이버먼데이 할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험으로 예견하면 보통 2일전부

터 시작해 많은 반짝 세일이 진행된다. 의류, 보석, 화장품 그리고 전자제품 할인이 많다.

이베이: \$60짜리 게임스탑 선물권을 \$50에 판매할 계획이며 \$100 토이즈 어러스 상품권을 \$85에 제공한다. 그 외 대폭 할인이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CPenney: 액세서리, 그리고 가구 가정용품 등 5만여 제품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Overstock.com : 아직 사이버먼데이 할인을 구상중이지만 이메일 알림을 신청한 사람에게 10% 할인권을 주고 있다.

Target: 아직 사이버 먼데이 할인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요일 하루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디오게임, 티비 그리고 장난감, 선물권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Walmart: 벌써 사이버 먼데이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월마트의 사이버먼데이는 사실상 월마트의 사이버워크의 시작이다. 월마트는 향후 10일동안 사이버먼데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자제품에서부터 선물권까지 좋은 할인제품을 찾을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죽상동맥경화
- ⑤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⑥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⑦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⑧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⑨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⑩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lim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브랜드이즈 대학생들 건물 점거하고 농성

13개 요구사항 수용될 때까지 계속 점거 계획
흑인 교수 비율 증가 등 인종 다양성 보장 요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브랜드이즈 대학생 수백 명이 총장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행정 건물을 점거하고 지난 20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리사 린치 임시 총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건물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을 #ConcernedStudents2015 라고 부르는 이 학생들은 지난 19일,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린치 총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13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다음날인 20일부터 버스타인-마커스 센터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된 20일 린치 총장은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학생들은 린치 총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 중에는 브랜드이즈 교수진 중에서 흑인 교수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인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늘리고, 매년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인종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

고, 흑인 상담 교사와 흑인 학생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일, 브랜드이즈 대학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웰러 대변인은 “우리는 학생들이 보낸 서한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이미 학생들에게 말했다” 라고 밝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는 버스타인-마커스 센터에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이즈 대학에서 흑인 교수의 비율은 단지 1%, 우

리는 더 많은 흑인 교수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여기저기에 붙어 있다.

니아 맥클린 브랜드이즈 대학 총학 생활장은 “수업 시간에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프리카-아메리칸 수업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는다” 며 “브랜드이즈는 교내에서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말했다.

1948년에 설립된 브랜드이즈 대학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48%가 백인, 5%가 흑인, 6%가 히스패닉, 13%가 아시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흑인 교수의 비율은 1% 미만이며 교내에 흑인 상담교사는 단 1명이 있다. jsi@bostonkorea.com



브랜드이즈 대학생들이 총장실로 가는 복도를 막고 농성 중이다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아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최근 조사에서 매사추세츠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24/7 Wall St. (247wallst.com)는 미국 각 주의 사회적, 경제학적 지표들을 종합하여 가장 살기 좋은 주를 선정하였다. 매사추세츠 외에도 커네티컷과 뉴햄프셔 주가 2위와 3위를 차지해 뉴잉글랜드 지방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는데 반해 실업률과 저소득층의 비율은 낮게 나

타났다. 게다가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고 다른 주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표준 시험 점수도 높아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되었다.

24/7 Wall St.는 “성인 5명 중 2명 이상이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곳은 매사추세츠 주가 유일하다.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 상황도 좋고 삶의 질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매사추세츠 주민의 평균 수명은 미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9세인데 매사추세츠 주민의 평균 수명은 80.5세이다.

jsi@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대잔치

11월 28일(일)까지

잔치 1

잔치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10% OFF

홍삼정 골드마일드 파이버추

홍삼정 + FREE GIFT

홍삼정 아이메스

자녀제품 구입시 아이케어 2개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Pld, Burlington, MA 01808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두샷 튜터링

Nabis Studio

높은 땅가격과 고임금으로 보스톤 주택값 천정부지로 솟아

보스톤 지역 주택가격 극한점으로 상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은 지난 몇 년동안 수만호의 주택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주택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스톤 재단이 보고서로 통해서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치솟는 땅값과 높은 인건비 자재값 등으로 인해 보스톤 지역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을 건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개입없이 만약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보스톤 지역은 고급주택과 저소득 주택만이 남게 될 것이며 중간소득 계층의 주택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스톤 내 평균 1600스퀘어피트 아파트의 경우 건축에 드는 비용은 \$438,000에 달한다고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배리 블루스톤 노스 이스턴대 교수는 밝혔다.

보스톤, 퀸지 등 도심의 주택 건설 비용은 지난 10년간 13%인상됐으며, 덴버, 스토튼 등 교외의 건축 비용은 30%나 인상됐다. 한편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평균 2베드룸 아파트 가격은 평균 2,600불로 지난 1년 반 사이 무려 7%나 인상됐다. 보스톤의 가장 일반적인 3층짜리집 한층 콘도의 평균 가격은 401,398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사추세츠 동부에서 건축된 100개의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 프

젝트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자재비는 단 6%올랐다. 가장 큰 비용 상승의 원인은 땅값이다. 땅값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려 40%나 상승했다. 또한 교외에 건축하는 경우 길과 수도 비용이 무려 80%나 상승해 교외 건축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케이프 케피탈 파트너스의 카일 위의 대표에 따르면 첼시, 퀸지, 리버 등지의 땅값은 지난 5년동안 약 아파트당 2만불에서 4만불로 두 배가 됐다. 위 대표는 “유닛당 4만불의 땅값은 5년 전만해도 보스톤 다운타운의 가격이었다. 지금은 약 15만불이 됐다” 고 밝혔다.

최근 보스톤 다운타운의 땅 거래는 기록적인 가격을 기록했다. WS 개발사는 10월 시포트 스퀘어의 12.5 에이커 땅을 3억5천9백만불(\$359 million)에 구입했다. 디브코웨스트는 노스포인트의 케임브리지 땅 42 에이커를 2억9천1백만달러에 구입했다.

이 같은 땅값의 상승은 다가올 해의 렌트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렌트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보스톤시가 더욱 많은 땅을 일반에 푸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교외 타운에 더 많은 다가구 주택 또는 대형 아파트 단지를 허용토록 개발제한을 푸는 조치(re-zoning parcels)가 수행되어야 가능하다.

보스톤 매트رو 지역의 5개 카운티

에서 올해 허용된 주택 건설은 총 12,795건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스톤, 에버렛, 그리고 첼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개의 교외 타운들은 10가구 이하의 건축만을 허용해오고 있다.

보스톤 파운데이션의 레베카 코에프닉 대표는 “대부분의 타운과 시는 신규 주택건설을 꺼리고 있으며 엄격한 개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는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 개발업자들은 올해 매사추세츠 의회에 각 타운들이 필수적으로 대형 아파트단지를 건축하고 이 같은 1가구주택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을 정치권에서 통과시키기는 요원하다. 모두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주택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보스톤은 주택 개발을 위해 시 소유 땅을 분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보스톤은 지금까지 260여 시 소유의 택지를 주택 개발자들에게 판매했다.

베이커 행정부도 주 정부 소유 땅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인 T와 컴퓨터 레일 역 인근의 택지를 푸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만이 치솟는 아파트 렌트값의 고삐를 풀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주택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다. 주정부와 시정부들의 향후 정책을 눈여겨 볼 대목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택 판매 5개월 연속 급상승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택판매가 10월 한달 작년 동기에 비해 16% 상승해 지난 1980년대말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워렌 그룹에 따르면 10월까지 1가구 단독주택 판매가 두자릿수 판매 상승폭을 기록함에 따라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7월은 전년 동기 대비 24% 판매가 증가했으며 8월에는 16퍼센트, 9월에는 25%가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주택 거래 침체에서 벗어났으며 낮은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경제상승이 공동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워렌 그룹 티모시 워렌 대표는 밝혔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가격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주택 가격 상승은 그러나 지역에 따라 불균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톤과 그 인근 지역의 가격상승은 아주 급격했지만 전체 평균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워렌 그룹은 매사추세츠 평균 1가구 주택 가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불과 2%(\$7,000) 상승한 \$327,000이

라고 밝혔다. 콘도 거래량은 지난달에 8%상승에 그쳤다. 9월에는 무려 20%나 상승했다. 콘도미니엄 평균 가격은 지난 2014년 \$290,000에서 8% 오른 \$315,000이었다.

한편 매사추세츠 부동산중개인연합(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의 지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1가구 주택 평균 가격은 10월 전 해 \$325,000에 비해 3% 오른 \$335,000이었다.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8% 상승했다. 매사추세츠부동산중개인연합의 지표는 워렌 그룹의 지표보다 약간 작은 지역의 지수를 반영한다.

부동산중개인연합에 따르면 콘도 거래량 2%정도 줄었으며 가격은 5% 가격 올랐다. 2014년 평균가격은 300,000이었지만 올해는 \$316,000이었다.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 재고량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는 이맘때 주택과 콘도 모두 거래가 17% 감소했다.

hsb@bostonkorea.com



사우스 보스톤 텔레그래프 스트리트에 있는 오래된 주택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대표입니다.
10년간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적을 올린 대표인(MBA)을 대표로 이끌고 BOSTON-CAMBRIDGE 지역을 가장 많이 팔고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률 3대 높은 시에는 10% 이상의 리스 서비스를 운영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 집가 시인제 혜택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eorengr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남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한인타운, 사립 설립된, 참나무로 둘러싸여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약정되어 계약되어 있음.
 현재 Allston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파리 테러〉 요동치는 미 대선판도.. "경제→안보 이슈 이동"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파리 연쇄테러 이후 미국의 대선판을 뒤 흔드는 이슈로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소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테러 여파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선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미국 일간 보스턴글로브와 서퍽 대학이 최근 뉴햄프셔 주(州)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는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파리 테러가 일어나기 전 조사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파리 테러로 미국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진 점이 반영된 결과다.

멤버 진 하이드(27·여)씨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저지른 참수와 2005년 런던 공격, 이번 파리 테러를 지켜본 결과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불안하다면서 "미국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슬린 존스(58·여)씨는 신을 믿기 때문에 인생에서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며 "총을 산 것을 물론 대도시 테러 위협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계획했던 뉴욕 여행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유권자들의 공포심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대선 후보들도 안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첫 번째 TV 광고에서 직설적인 어조로 "파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뉴햄프셔 주의 맨체스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 경선은 "파리 (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들은 걱정 없이 쇼핑몰에 가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내 무슬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슬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리 테러 이후 시리아 난민 수용문제를 놓

고 미국 공화당은 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WP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난민 반대 운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경선 유세 과정에서 높아진 (유권자들의) 공포와 걱정을 마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테러 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IS에 맞서려면 시리아 등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WP는 "런던과 마드리드 테러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분노와 공포가 쏟아지고 있다"며 "무슬림에 대한 의심과 난민에의 무관용이 점점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파리 연쇄테러(위), 뉴욕 경찰, 테러대비 경계 강화(아래)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크루즈 아이오와와 깜짝 2위, 유동성 커진 미 대선판 춤추는 여론조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사상 최악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대선판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여론조사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대선의 화두가 경제나 종교, 총기 문제 등에서 안보 이슈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변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쿨리피앰대학이 24일 공개한 '대선폭향계'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11월16~22일·공화당 지지자 600명) 결과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23%를 얻어 25%를 기록한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간 4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을 거치면서 크루즈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단숨에 20%대로 치고 올라오며 2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루즈 의원의 주요 지지 기반은 당내 강경 성향의 티파티로, 티파티에서 무려 42%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크루즈 의원이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파리 테러범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상대적으로 공화당의 선명한 색깔을 대변한 것이 티파티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그간 트럼프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은 18%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으며 신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13%로 4위에 그쳤다.

젯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4%에 머물러 5%를 얻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에게도 밀려 6위에 랭크됐다.

이 대학의 10월 여론조사에서는 카슨이 28%로 1위를 달렸고 그 다음은 트럼프 20%, 루비오 의원 13%, 크루즈 의원 10%, 폴 의원 6%, 부시 전 주지사와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 CEO 각 5% 등의 순이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공화당 대선 경선판이 무한 경쟁 구도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sims@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t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COLDWELL BANKER
SPECIALIST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시카고...흑인 총격살해 영상공개 '후폭풍'

시위대 3명 체포... '퍼거슨 · 볼티모어 폭동' 재현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지현 기자 =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동영상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대형 폭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20일 백인 경관 제이슨 반 다이크가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를 살해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공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검찰이 해고된 다이크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다이크는 작은 칼로 경찰차 타이어를 긁고 있던 맥도널드를 발견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총을 쏘고 그가 쓰러지고서도 13초 동안 총격을 가하는 등 16발을 퍼부어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켰다.

맥도널드가 다이크에게 말을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영상으로 확인되자 분노한 시카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카고 시내 미시간 가(街) 등으로 나온 시위대 수백 명은 "16발!"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으며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체포된 시위 참가자를 태워 가려는 경찰 승합차를 가로막기도 했다.

방독면을 쓰고 시위에 나서거나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을 밀어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시카고의 흑인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그저 잔인한 경찰이 흑인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 이 도시, 경찰, 너무도 많은 사람이 보여준 무관심에 좌절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영상 공개에 따른 시위가 '퍼거슨 사태'나 '볼티모어 사태' 등과 같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흑인 사망에 이은 대규모 폭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에도 경관의 체포 장면을 찍은 동영상 일부가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는 시점에 영상이 공개됐지만 흑인 청년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시위가 실제로 발생하자 시카고 시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람 이매뉴얼 시장은 "영상을 본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항의 시위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대립의 장벽보다는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비디오 공개와 관련, "흑인 청년의 피격 사망 사건이 있는 퍼거슨과 볼티모어에서의 소요 사태가 시카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진다"고 전했다.

맥도널드의 가족은 "우리보다 더 분노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크게 외치고 싶다면 평화적으로 하라. 맥도널드의 이름으로 폭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폭력적 시위에 반대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4월 맥도널드가 죽에게 합의금 격으로 500만 달러(약 57억원)를 지급했다.

kong79@yna.co.kr, jk@yna.co.kr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 버전 1월 지원중단...한국 혼란 우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예고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옛 버전에 대한 지원 중단이 7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옛 버전 IE와 액티브X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한국 관공서 · 금융기관 · 기업들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26일 MS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년 1월 12일부터 이 회사의 각 운영체제(OS)에 대해 그 OS에서 돌아가는 최신 IE 버전에 대해서만 기술지원과 보안업데이트를 제공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기로 했다. MS는 이런 일정을 올해 8월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윈도 7 서비스 팩(SP) 1에서 IE 8 · 9 · 10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IE 11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기술지원과 보안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MS는 데스크톱 OS 중 윈도 7 SP1, 8.1 업데이트, 10에서 예지를 쓰지 않고 아직도 IE를 쓰는 사용자들을 위

해 IE 11을 계속 지원기로 했다.

또 윈도 서버 OS 중 2008 R2 SP1, R2 IA64(아이테니엄), 2012 R2, 임베디드 기기용 윈도 중 임베디드 스탠다드 7, 임베디드 포스레디 7, 윈도 8.1 인터스트리 업데이트 등에 대해서도 IE 11을 지원할 예정이다.



IE 11은 IE의 최후 버전이다. MS는 윈도 10부터 '에지'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MS는 기업이나 관공서 등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윈도 10을 쓸 때 IE

대신 에지브라우저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사용자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구축한 업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아직도 IE 10 이전의 옛 버전을 쓴다. 이런 사례가 한국에는 특히 많다.

나온 지 오래된 OS들은 IE 11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OS가 지원하는 마지막 버전 IE가 지원된다. 다만 각 OS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그 OS에서 돌아가는 IE 버전의 지원도 자연히 중단된다.

이에 따라 데스크톱 OS 중 윈도 비스타 SP2, 윈도 서버 OS 중 2008 SP2와 IA64(아이테니엄)에 대해서는 IE 9가 지원된다. 윈도 서버 2012에 대해서는 IE 10이 지원된다.

임베디드 기기용 윈도 중 WEPOS는 IE 7, WES09, 임베디드 포스레디 2009, 윈도 신 PC는 IE 8, 윈도 임베디드 8 스탠다드는 IE 10을 계속 지원하게 된다.

solatido@yna.co.kr



미국서 사가스병 일으키는 '키싱버그' 공포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에서 바퀴벌레를 닮은 '키싱버그(kissing bug)'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트리아토마 빈대'로 불리는 2~3cm 길이의 이 벌레는 '사가스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인체에 감염시킬 수 있는데, 미국의 27개 주(州)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5일 이 벌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 벌레는 야행성이다. 포유류의 피를 흡입하는데, 밤에 자고 있는 사람의 입 · 코 주위를 주로 물기 때문에 '키싱버그'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벌레의 절반 정도가 사가스병을 일으키는 트리아토마(Trypanosoma Cruzi) 기생충을 갖고

키싱버그에 물리는 것 자체가 위

협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리아토마 기생충에 감염된 키싱버그에 물리고, 벌레가 배설까지 해서 물린 상처가 감염될 경우, 사가스병 감염 확률이 커진다.

사가스병 감염자는 발열과 피로, 무력감, 구토, 식욕부진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정도가 미미하면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감염자의 20~30% 정도는 호흡곤란, 가슴통증, 심장과 장기의 합병증으로 고통받거나 드문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약이 나와 있으며,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으라는 권고되고 있다.

이 벌레는 또 사람 뿐 아니라 애완동물도 공격한다.

quintet@yna.co.kr



미국 10월 가계소비 0.1% 상승...9월과 동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의 월간 가계 소비지출이 지난달에도 더딘 증가 속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소비지출(PCE)이 한 달 전보다 0.1%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0.2~0.3%의 PCE 증가율을 기대했다.

월간 PCE 증가율은 지난 5월 0.9%를 기록하며 소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지만,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매월 0.3%의 증가율에 머물렀다가 지난 9월에는 0.1%로 더 낮아졌다.

지난 10월 PCE 물가지수의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폭은 0.2%, 식재료와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1.3%였다. 이들 두 지표 모두 지난 9월의 값과 동일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주요 물가지표로 간주하는 핵심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계속 1.3%를 유지하며 물가 목표치인 2%에 좀처럼 접근하지 않고 있다. 당초 1.2%였던 지난 7월 핵심 PCE 물가지수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률은 1.3%로 수정 발표됐다.

전체 개인소득의 지난 10월 증가율은 0.4%로 다시 높아졌다. 지난 9월의 개인소득 증가율은 0.1%에서 0.2%로 수정됐다.

특히 지난 10월 임금소득은 0.6% 증가하며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소비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1%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이었다.

다만, 지난 10월 개인저축률은 5.6%로 201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smile@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텍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볼텍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escott St, Cambridge, MA 02142



Parking Information
1. 103 Prescott St, Cambridge (near 103rd St)
2. 103 Prescott St, Cambridge (near 103rd St)
3. 103 Prescott St, Cambridge (near 103rd St)

CRG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도집 \$700,000, 주거 면적 3072 sq. ft. 현대식 욕조, 500 콘크리트, Quaker Dining, Hard oak floor, granite counter,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 \$43,400, 주거 면적 2300 sq. ft. 대지 면적 4000 sq. ft.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정원, Green line D 역, 2차 최상의 위치, 풀 그린, 5 year New! 현대식도, heating system, etc.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 주차 약 95,000, 대지 면적 8595 sq. ft. 난방 \$5800



Newton \$1,300,000
2가구집, 연도집 \$845,000, 대지 면적 6200 sq. ft. 현대식 욕조, 욕이 있음, 연도집이 좋은 위치(T 역), 보스톤 대학교



Newton \$1,999,000
완벽한 집, 최고 학교, 주거 면적 5800 sq. ft. 대지 면적 10000 sq. ft. 법5대, 화장실 5대, Granite, Fullwoo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 집, 법 4대, 화장실 3대, 멋진 학교, 보스톤 대학교, 가격 주거 면적 3800 sq. ft. 대지 면적 7000 sq. ft. Fullwoo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3차 대 콘크리트,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연도집보다 저렴한 가격, 법 2,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1300 sq. ft. 30만불대는 한 공간 남양호 95 고속도로 연결, Garage Parking



Burlington \$ 599,000
2013년 새 집, 법 2, 화장실 2.5대, 주거 면적 3000 sq. ft. 대지 면적 4075 sq. ft. Heart 상권 연결.



Boston Fenway \$ 384,000
법 1개, 화장실 2대, 주거 면적 5700 sq. ft. 콘도 fee \$ 200 (Heat, Hot water 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290,000
2013년 새 집 최고의 학교 법 4대 화장실 4.5대 주거 면적 4000 sq. ft. 대지 면적 17500 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빛속에도 식지 않는 조문 열기

YS와 '악연' 전두환·노태우 장남 등 막바지 빈소 찾아 정의화 "과(過) 침소봉대"...막내딸 "과부각 안타까워" 나흘째 빈소 지킨 김무성·서청원·손학규 YS 키즈들

(서울=뉴스1) 심언기, 박응진, 손근혜 인턴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국가장 나흘째인 25일 비가 내리는 낯선 날씨에도 정·재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등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차남 현철씨를 비롯한 유가족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된 뒤 이날 밤 9시까지 총 3만5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 이날은 김 전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씨가 잇달아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대통령과 '36년 악연'을 이어온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빈소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과 함께 "고

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조문을 마친 전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10여분 간 환담을 나누고, YS에 대한 평가와 화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 10시38분쯤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씨가 "(노 전 대통령이) 지금 거동하시기 힘들시기 때문에 가서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라는 뜻을 전하셨다"며 조문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 전 대통령과 신군부 집권 내내 대립했고,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자금 등을 문제 삼아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른바 'YS 키즈'로 꼽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독일 의회와의 정상외교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급거 귀국, 이날 저녁 6시4분쯤 빈소를 찾아 "영웅이

떠나 슬프다"고 애도했다. 정 의장은 "공과(功過)가 다 있는데 과를 침소봉대했다"며 "(YS가) 안 계셨으면 우리 유신독재로 다 망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의 막내딸 김혜숙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과가 부각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장과 함께 YS 키즈로 불리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상도동계 인사들과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 등이 나흘째 빈소를 지켰다. 이밖에도 이날 빈소에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박영록 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박창식·홍문종·김상민 의원, 새정치연합 오영식·이춘석·조중석 의원 등, 김주현 법무부 차관,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상순 한화그룹 부회장, 하장춘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김정길 4월회 회장, 정동찬 전 특허청장, 임정규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전 야구선수 박찬호씨, 황우석 박사, 허경영씨 등도 조문을 했다.

국가장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장례식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추도하기 위한 간송예배가 열리고, 오후에는 장례식장을 출발한 운구차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한다. 이날 영결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에는 장례위원(약 2000명), 주한외교단 및 조문사절(약 80명), 유가족 관련 인사(약 100명) 등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구차는 이어 동작구 상도동의 김 전 대통령 사저, 기념도서관 등을 거쳐 안장식이 이뤄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현충원 장군 제3묘역 오른쪽 능선에 조성된다.

pej86@news1.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 | | | |
|--|--|---|--|
|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
| Northeastern Univ. | Pre-MBA Program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
| Cambridge College |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Dunwoody College | |
| Lesell College |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 |
| Lesley University |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
| Merrimack College |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 |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 | | |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27TH - DEC. 3RD, 2015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ello Home
 smile, you're home!

Thanksgiving Celebration!

Time to feast on the savings.

11/21-12/4, 2015 at All Hmart Stores
 풍성한 추수 감사절, 마트가 준비한 특별세일 하우스웨어 특별세일

YOU MUST BRING THE FLYER DISPLAYED IN THE STORE TO THE REGISTE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 OF THE DISCOUNTS. THERE ARE MORE SALES ITEMS LISTED ON THE FLYER THAT YOU CAN CHOOSE FROM. DUE TO PRODUCT AVAILABILITY, SOME PRODUCTS MAY SOLD OUT SOONER. 매장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해 보시고 더 큰 세일을 누리보세요. (할인 혜택은 전단지 안에 있는 쿠폰만 가능합니다.)

| | | | |
|---|--|---|--|
| <p>\$29.99 \$39.99 LIMIT 1 ea. YOBO HOME Food Dehydrator 여보홈 음식 건조기 FF-770/Black/White/ea.</p> | <p>\$42.99 \$59.99 LIMIT 1 ea. KüHAUS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세라믹 히터 HSNT-12/ea.</p> | <p>\$29.99 \$39.99 LIMIT 2 ea. KüHAUS Egg Style Humidifier 쿠하우스 달걀형 가습기 Dark Brown/Natural Brown/ea.</p> | <p>\$19.99 \$29.99 LIMIT 1 ea. KOTO Elec. Rice Cooker 코토 전기 밥솥 5cups/ea.</p> |
| <p>30cm \$14.99 \$21.99 32cm \$17.99 \$29.99 LIMIT 2 ea. SESHIN Dolce Frying Wok Pan 세신 dolce 마를 궁중 뒤편 ea.</p> | <p>\$19.99 \$29.99 LIMIT 1 ea. SUNHAK Electric Heating Chair Mat 선학 온열 방석 LCM-100/440mm x 440mm/ea.</p> | <p>\$4.49 \$5.99 LIMIT 4 pair Rabbit Slipper 토끼 슬리퍼 Pink/Brown/pair</p> | <p>30 x 40cm \$6.99 → \$4.99 25 x 35cm \$5.99 → \$3.99 LIMIT 2 ea. PUREUN SAENG HWAL Plastic Roll Bag 푸른생활 위생 롤백 500cnt/ea.</p> |


NISHI MOTO Sekka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SMART CARD ONLY)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 (SMART CARD ONLY)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9.99** (SMART CARD ONLY)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 | | |
|---|---|--|
| <p>Hachiya Persimmon 연시 박스 \$19.99 FRI/SAT/SUN ONLY 27/28/29 ONLY</p> |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버섯 8oz./pkg. \$3.99</p> | <p>Dried Persimmon 곱감 \$5.99</p> |
| <p>Singo Pear 신고배 박스 \$26.99</p> |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p> |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0.99</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 <p>Beef Short Rib/Chunk for Stew 찜갈비 \$9.99</p> | <p>Whole Chicken 통닭 \$1.49</p> | <p>Pork CT Butt/Chunk 수육용 생돼지목살 \$4.99</p> |
| <p>Beef Bones 명동 사골 \$1.49</p> |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명동 돼지 불고기 \$5.99</p> | <p>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p>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 <p>Beltfish 생갈치 \$4.99</p> | <p>Cooked Whole Clam 명동 백합조개 1lb./pkg. \$2.99</p> | <p>Head-On Wild Jumbo White Shrimp for BBQ 소금구이용 자연산 왕새우 9-12's \$9.99</p> |
| <p>SUHYUP Cleaned Squid (No Legs) 수협 냉동 오징어뿔 \$2.99</p> |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4.99</p> | <p>Salted Beltfish 냉동 자반 갈치 \$3.99</p> |

| | |
|---|---|
| <p>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개맛살 1.1 lbs. \$5.99</p> | <p>S&B Golden Curry S&B 골든 카레 All Varieties/ 8.4oz. \$2.99</p> |
| <p>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265 lbs. \$4.99</p> | <p>CHUNG JUNGONE HongCho Vinegreet Drink 청정원 풍조 \$6.99 All Flavors/ 900mL</p> |
| <p>CJ Dasida Beef Flavor Soup Stock CJ 쇠고기 다시다 2.2 lbs. \$9.99</p> | <p>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5.29oz. x 4cans/pkg. \$7.99</p> |
| <p>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선인장 꿀가루 1lb. \$2.99</p> | <p>동원참치 동원참치</p>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TOBAGI

여야 정치인들 'YS 유지 받들어야' 한목소리...방점은 달라

여 "의회주의" vs 야 "민주주의"

(서울=뉴스1) 김현, 박응진, 심언기 기자 =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은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이 가는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여야는 모두 김 전 대통령이 생애에 보여준 민주화 정신과 각종 개혁 업적 등에 대한 계승·발전을 강조했다. 그 방점은 각각 달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영결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며 "김 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후대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저희 후배들이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가 중단없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항상 협상과 타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재평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김 전 대통령께서 노력한 업적이 저평가 돼왔다.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 김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

면서 "대통령님의 훌륭한 애국심을 잘 본받아서 열심히 좋은 나라를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 부디 영면하시라"고 말했다.

영결식 추도사를 낭독했던 김수환 전 국회의장도 "고인이 남긴 유언은 하나된 방향으로, 분열보단 결속이다. (후배 정치인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이번에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서로 다투고 살벌하게 할 게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게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 전 대통령님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별이셨다"고 평가한 뒤 "부마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 정권을 끝냈는데 그 부마민주항쟁이 바로 김 대통령께서 기폭제가 되신 것이고, 그이후에 전두환 군부정권을 끝장냈던 6월 항쟁도 김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 이끌었던 호연철폐, 그리고 개헌서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음

깊이 애도하면서 또 지금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기도 하다"며 "지금은 당신께서 평생 동안 온몸으로 싸워 이룬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고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전 대통령님을 떠나보내게 되니까 후배 된 입장에서 한편으로 착잡하다"고 지적했다.

조문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던 손학

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김 전 대통령께서 가시면서도 새로 통합과 화합의 역사를 썼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 가신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배울 수가 있었고, 문민정치의 위대함,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께서 가

시면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주셨다"며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대로 담대한 용기를 갖고 의회주의의 길로 민주주의의 길을 바로 세워 나가야겠다. 김 전 대통령이 가신 것을 계기로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이 함께 써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국회에서 거행됐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가 분향을 마친 뒤 돌아오고 있다

문민정부 인사들, YS공과 평가 속 현 정치권 향해 '쓴소리'

문민정부 최대 성과 '하나회 척결' 아쉬웠던 점 'IMF사태' 'YS-DJ 만든 민주주의 후퇴...정치권 각성해야' 입 모아 '정치적 아들' 자임하고 상주 역할하는 김무성 평 엇갈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6일, 김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등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은 문민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김 전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회상하는 한편, 현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이들은 문민정부 최대 성과로 하나회 척결 등 군 권위주의 해체, 아쉬웠던 점으로는 IMF사태를 꼽았다. 현 정치권을 향해서는 김 전 대통령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한 예로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평가는 엇갈렸다.

문민정부 초대 통일부총리를 지냈던 한완상 전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 청와대의 안가 철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이 가장 분개하는

것에 대해 '편법주의'를 꼽으며 '편법주의의 가장 나쁜 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박정희 대통령 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지 않느냐"며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확실한 지표가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건데, 자기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정치적인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면서 충성경쟁을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YS의 반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투쟁의 현실을 보면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건 정치적 치매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하겠나"라며 "(김 전 대통령이 건강했다면 마음이) 아파할 정도가 아니라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을) 불러서 야단을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인 '통합과 화합'에 대해 '국

민이 누려야할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전제로 돼야 한다면서 "야권에서 문재인 씨(당대표)를 비판할 때 낡은 진보 때문에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유신체제 때 민주투사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원칙 없이 화해와 통합을 하는 건 적어도 YS가 유신체제에서 싸웠던 그 시대에선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당시 최장수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 환경부장관 등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말을 보탰다. 윤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성과에 대해 하나회 숙청으로 시작해 역사바로세우기로 마무리한 군사권위주의 해체, 아쉬운 점으로는 IMF사태를 꼽았다.

윤 전 장관은 또 정치권에서 'YS적자 경쟁'이 벌어진 데 대해 "이분이 야당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다 '3당 합당'으로 여당의 지도자가 되다보니 여야에 다 이양반을 추종하던 분들이 있다"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최근 국민들의 추모열기가 뜨거워지니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분의 대를 이은 세력이라는 걸 국민에게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문민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정치인들의 이른바 'YS마케팅'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이만큼이라도 시켜놓았으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완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유지를 정치인들이 되새기고 새롭게 각성하는 게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상도동계 핵심인 사인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

입니다'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국정교과서가 획일화된 사고를 강요하기 때문에 유신시대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게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회상하면서 '소통능력'이 뛰어났다고 평했다.

한 전 총리는 "YS의 탁월한 인간적 매력과 장점이 그런 점이다. 주저 없이 소통하고 얘길 듣는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도 김 전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로 얘기가 상당히 진전된 다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누구보다 김 전 대통령은 남의 얘길 경청하는 분이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을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영결식장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박 대통령 "불법집회 폭력행위는 정부 무력화 의도"

국무회의서 '깊은 한숨' 내쉬며 민노총 비판...

국가안위 차원에서 "엄정한 법과 원칙 적용"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노총을 불법 조정 및 폭력 조정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남북 대치와 전 세계적 테러 상황 속에서 이런 시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이번 시위사태를 다루고, 또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

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 시위를 언급하는 중간 중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

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IS(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연합')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수배 중인 상황

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물대포 사고는 커녕 국민을 IS라니"... 대통령 면담 요구

"살인진압 사과해야" 기자회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농민단체들은 25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대를 이슬람 극단주의(IS)에 빚대 발언한 것과 관련,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와 백남기 농민 가족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적 살인진압에 대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IS라고 한다"며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차벽 넘어 있었던 13만명의 사람들은 IS가 아니라 수십년간 본전도 못찾으며 농사를 지은 농민, 비정규직에 신음한 노동자들,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것들을 알리려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한다"며 "물대포를 쏘서 한 농민을 살인진압한 박근혜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고 외쳤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박 대통령의 망언은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착각한 듯한 망언도

마구 내뱉고 있다. 헌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위헌적인 망발"이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와 같이 보성에서 상경한 농민 문경식씨는 "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져야 할 대통령이 사고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엔 백씨의 첫째딸 백도라씨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상태가 위중해 병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는 집회 전 이미 폭력시위로 규정해 여론을 조작하고, 평화행진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댔다"며 "경찰의 살인적 폭력진압도 부족해 IS까지 들먹이며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렇게 인륜도, 공정성도 없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청와대 보고라인의 문제이거나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면담을 요청해 그날의 상황과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담요청을 떠나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하게 된 농민을 찾아가 쾌유를 빌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회견이 끝난 뒤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연풍문 안내실에 면담 신청서를 전달했다.

chacha@news1.kr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6)씨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복면금지' 법안 논란...

"폭력시위 근절" vs "표현의 자유 억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집회 도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의 폭압적 진압과 불법적 증거수집에 맞서기 위해 복면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복면금지' 법안의 국회 제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날 발의된 복면금지 법안을 포함하면 2004년 이후 총 8건의 복면금지 법안이 의원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집회와 집회에서의 무력충돌이 있는 뒤에는 거듭 발의돼 온 셈이다.

하지만 '복면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지금까지 발의된 법

안들은 소관위 심사에조차 부쳐지지 않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매번 흐지부지 됐던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집회에서의 복면착용에 대해 IS(이슬람 국가)에 빚대 비판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금지' 법제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만큼 다른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법안을 발의할 때 함께 제출하는 '제안이유'는 '복면금지' 법제화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와 함께 "과격한 폭력시위 예방을 위해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를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집회·시위에서의 복면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과격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복면을 지목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군중심리'가 발동되고 복면으로 익명성까지 보장되면 폭력성은 더 짙어진다는 논리다.

jurist@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청, 세월호특조위에 "위헌적 발상 벗어나 임무에 충실하길"

박 대통령 행적 조사 배제 않기로 한 특조위 결정에 입장 밝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24일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

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실제적으로 위헌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적하지 못했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특조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girin@news1.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대선 김무성·문재인·박원순과 붙어도 모두 승리

어느 당에서 출마해도 지지 비슷...머니투데이·리얼미터 조사

(서울=뉴스1) 서미션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유력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 과반 이상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해도 비슷한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6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반 총장 차기 대선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 총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1대1로 대선에서 대결할 경우 모두 50% 이상 득표하며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김 대표와 경쟁할 경우 55.1%가 반 총장을 지지한 반면 김 대표 지지율은 31.7%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후보와 붙는 가상대결에서도 55.0%대 33.9% 지지율로 앞섰다. 새누리당 반기문 후보 대 박 시장은 51.0%대 38.1%로 전망됐다.

먼저 김 대표와 맞붙을 경우 충북 음성 출신 반 총장은 충청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젊은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진보층과 중도층, 새정치연합 지지자와 지지 정당에 없는 무당층에서도 반 총장의 인기가 높았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도 41.3%대 40.5%, 46.9%대 42.3%로 김 대표를 앞질렀다. 다만 보수층과 60대 이상 계층에서는 반 총장이 16~20%p차로 김 대표보다 뒤처졌다.

반 총장이 여당 후보로 문 대표, 박 시장과 경쟁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 지역과 모든 연령대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 총장 대 문 대표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 총장은 TK와 PK, 충청권에서 우세했고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도 문 대표를 6%p 가량 앞섰다.

반 총장은 야당 지지세가 높은 20대에서 문 대표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등 2040세대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였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박 시장과 대결할 경우엔 새누리당 지지 계층이 반 총장에 집중되는 모습은 같았지

만, 문 대표와의 경합과 비교했을 때 야당 표가 박 시장에 더 몰렸다. 반 총장은 호남·3040 계층에서 문 대표를 이겼던 것과 달리 박 시장에게는 졌다.

상대 후보 상정 없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로 반 총장 경쟁력을 묻는 '여야 후보로 반 총장 지지율 조사'에서는 반 총장 지지율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새누리당 후보로 반 총장을 지지할 것인 응답은 36.0%, 새정치연합 후보로 반 총장을 지지할 것인 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반 총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결집해 어느 정당으로 출마하든 상대 후보에 비해 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여야 후보로 반 총장 지지율 조사'와 '반 총장 차기 대선 경쟁력 조사'는 각각 19~20일, 23~24일에 실시됐다. 두 조사 모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병행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과 표본오차는 '여야 후보로 반 총장 지지율 조사'가 5.1%, ±5.1%p(95% 신뢰수준)였고 '반 총장 차기 대선 경쟁력 조사'는 5.2%, ±3.1%p(95% 신뢰수준)였다.

smith@news1.kr

부시 대통령 9.11 조사 충실히 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의 9.11 조사 백서에는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이 시간대 별로 기록되어 있다.

"...수백만 명의 남녀 직장인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가(街) 끝에는 백악관에 관광 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주 사라토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침 조깅을 나섰다." - 9·11 Commission Report 일부

오전 8시 46분, 55분, 9시...부시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은 보고서에서 주요 항목으로 등장한다.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던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의 테러 공격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7분간 더 있다 교실을 빠져 나왔다. 부시 대통령은 9.11원 조사위원회와 비공개 면담에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안심시키기 위해 그곳에 7분이나 더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그것이

끝이었다. 설득력 있는 설명에 왜 7분을 허비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더 이상 제기되지 못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조사위원회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었다. 당초 거부했지만 정면돌파기로 했으며 1시간 한정 조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세히 답변했다. 그는 또 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2개월 연장에도 찬성했다.

분명 자신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솔직한 자세로 9.11 조사위원회와 대화를 나누고 그는 기자회견에서 "조사위원회와 정면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나는 조사 자체를 오히려 즐겼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이라크 전쟁 등 실정으로 비판받는 그이지만 9.11 대처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진솔한 태도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부시 당시 대통령이 9·11테러 현장을 살피던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성기를 잡았다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짜마 70분 부터
디자깅 130분 부터/개머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생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타일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망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인회관 재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남궁연

위원: 안병학, 김성군, 이영호, 유한선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축하합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병 철 전 한인회장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of Boston

<판공성사>
12/6일, 13일, 20일 주일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목) 8pm

<성탄절 행사 & 미사>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금) 12:15pm
미사
12월 25일(금) 4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목)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금) 11:30 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일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City of Concord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요 기도회: 저녁 7:00

주요 직역: 목사: 김기호, 권사: 김희연, 장로: 김기호, 김희연, 김기호, 김희연

담당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3-0571 | 팩스: (781) 643-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Member of RE/MAX)

www.ganain.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 | |
|--------|-------|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 주일 학교 | 오후 3시 |
| 전도인 공부 | 오후 4시 |
| 목요 공부 | 오후 7시 |
| 수요 예배 | 오후 7시 |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2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리저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진리 말씀 배우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질문, 토론, 안내, 사랑, 헌신, 부활을 위한 사랑을 나누어줍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년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0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위로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상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 본사를 본 카드를 결제 가능한 회사에서 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Efit 카드를 포함한, 가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에 모든 카드를 처리하도록 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UMS 본소리지사 겸사령기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비교해서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역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입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이선호 지사장 / energy@slp-seon.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견사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 | | | |
|--|--|--|--|
| <p>\$629,000 Sturton, MA 4 Beds, 2.5 Baths, 2416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97</p> | <p>\$629,900 Sturton, MA 4 Beds, 2.5 Bath, 2436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97</p> | <p>\$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p> | <p>\$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sf. Great Location! 조성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니스리 978-806-0023</p> |
|--|--|--|--|

단독주택 Single Family



| | | | |
|--|--|---|---|
| <p>\$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Choi 978-866-3248</p> | <p>\$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sf. Excellent location GinaChoi 978-866-3248</p> | <p>\$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p> | <p>\$519,000 Tempsbury, MA 4 beds, 2.5 baths, 2958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p> |
|--|--|---|---|

콘도 Condominium



| | | | |
|--|---|--|---|
| <p>\$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sf. four level 타운홈 AnnaJung 617-780-1675</p> | <p>\$219,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0064</p> | <p>\$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Luxury condo JayLee 781-654-5281</p> | <p>\$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Yun 617-459-5985</p> |
|--|---|--|---|

| | | | |
|--|---|---|---|
| <p>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리츠 콘도 2016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p> | <p>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p> | <p>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p> | <p>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p> |
| <p>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p> | <p>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0023</p> | <p>Condo Rental \$1,0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p> | |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 | | | |
|---|--|--|---|
|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q. Capacity of 120 people AnnaJung 617-780-1675 |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 Restaurant \$899,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Lee) 401-935-3397 |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q. 180 인석 AnnaJung 617-780-1675 |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I Park 617-304-7001 | Commerdal 커머셜 건물 투자 SI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졸스톤, 뉴튼 센터 SI Park 617-304-7001 |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q. 38대 주차 공간 Unas Memorial 병원 옆 AnnaJung 617-780-1675 |
|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Jung 617-780-1675 |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방문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 Full Plant Dry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 Full Plant Drycleaner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장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Lee) 401-935-3397 |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I Park 617-304-7001 |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I Park 617-304-7001 |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Jung 617-780-1675 |
|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SI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artmouth AnnaJung 617-780-1675 |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Jung 617-780-1675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값수준 등 모든 조건에 맞추어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256-0409 |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강리아** T. 617-955-9112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시상권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다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남: 95만원 / 여: 75만원

-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비인후과 검사 (상악/하악 비인도, 사체, 열감)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흉부엑사 검사 (전위, 대방위, 흉부전, 전소장, 전방전)
 5. 상악/하악 검사 (전위 X-Ray, 단면, 노측성 재촬영)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귀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고령, 흉터,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흉부 (M) CT | 1. 갑상선 초음파 |
| 2. 전립선 초음파 | 2. 부인내과(자궁) 초음파 |
| 3. 골밀도 검사 | 3. 유방 초음파 |
| 4. 대장내시경수술 | 4. 골밀도 검사 |
| | 5. 대장내시경수술 |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1. 기본 검사 (상악/하악 비인도, 사체, 열감)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흉부엑사 검사 (전위, 대방위, 흉부전, 전소장, 전방전)
 5. 상악/하악 검사 (전위 X-Ray, 단면, 노측성 재촬영)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귀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고령, 흉터,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뇌 MRA | 1. 뇌 MRA |
| 2. 뇌 MRI | 2. 뇌 MRI |
| 3. 관상동맥 CT | 3. 전상완관 CT |
| 4. 흉부 (M) CT | 4. 흉부 (M) CT |
| 5. 심장 초음파 | 5. 심장 초음파 |
| 6. 갑상선 초음파 | 6. 갑상선 초음파 |
| 7. 경부관 초음파 | 7. 경부관 초음파 |
| 8. 전방전 초음파 | 8. 부인내과(자궁) 초음파 |
| 9. 골밀도 검사 | 9. 유방 초음파 |
| 10. 대장내시경수술 | 10. 골밀도 검사 |
| | 11. 대장내시경수술 |

당일 종합검진

남: 50만원 / 여: 60만원

-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비인후과 검사 (상악/하악 비인도, 사체, 열감)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흉부엑사 검사 (전위, 대방위, 흉부전, 전소장, 전방전)
 5. 상악/하악 검사 (전위 X-Ray, 단면, 노측성 재촬영)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귀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고령, 흉터,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흉부 (M) CT | 1. 갑상선 초음파 |
| 2. 전립선 초음파 | 2. 부인내과(자궁) 초음파 |
| 3. 골밀도 검사 | 3. 유방 초음파 |
| | 4. 골밀도 검사 |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복부초음파 + 대장내시경 + 요검사 + 호르몬검사(갑상선, 유방, 골밀도)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포함: 대입세탁, 세공
 * PET/CT 검사: 120만원 (PET/CT 포함 PET/CT) 별도
 * 대장내시경 검사: 150만원 (대장내시경 포함 PET/CT) 별도
 * 요, 요, 요 검사: 10만원 (요 검사 포함)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9:30am~12:30pm (10명)
- 당일 종합검진: 2pm~5pm (10명/1회 200)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VIP 종합검진: 2pm~5pm (10명/1회 200)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5인실
- VVIP 종합검진: 2pm~5pm (10명/1회 200)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5인실



2008년부터 해외동포 건강검진 시행 대림성모병원

- 5개의 특성화된 전문 센터 구비
- 15개 진료과에 40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800여명의 의료진
- 대림성모병원 대상: 과장선 부분 5년 연속 대상 수상
- 약 2,500여명의 해외동포 및 외국인 검진 및 수술 경험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건강검진 안내

1. Royal Gold 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2. 세면도구 제공 / 3.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 제공
4. Royal Gold 검진은 PICK UP SERVICE 제공 / 5. 검진시행부터 결과상담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 | |
|----------------------|---|
| Royal Gold 검진 | 남성: 215만원 여성: 225만원 |
| 입원 종합검진 | 남성: 84만원 여성: 75만원 |
| 당일 종합검진 | 남성: 50만원 여성: 60만원 (대형차량 추가: 남성 60만원 여성 70만원) |
| 복화 검진 | ▶ 뇌 정맥검진: 92만원 (소요시간 1시간) ▶ 심장 정맥검진: 17만원 (소요시간 2시간) ▶ 심장정맥 MD CT: 23만원 (소요시간 30분) ▶ 골다공증 검사: 5만원 (소요시간 30분) |

전문센터 및 주요수술 유방입상선 센터 / 소화기내시경 센터 / 척추정밀 센터 / 중풍치매 센터
 하지장애류 · 다한증 클리닉 / 부인과 클리닉 / 복강경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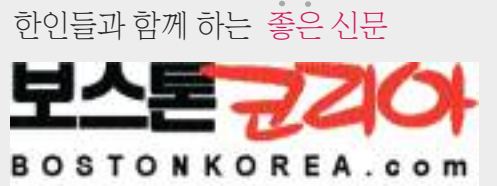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010.345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강리아
 617.955.9112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 | 617-338-2352 |
| 견인 | 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세청 | 800-829-1040 |
| 날씨문 | 617-976-6200 |
| 로간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아찾기 | 888-477-6721 |
| 백메이역 | 617-345-7958 |
| 보스턴공립학교 | 617-635-9000 |
| 보스턴수도 | 617-989-7000 |
| 보스턴시청 | 617-635-4500 |
| 보스턴청영사관 | 617-641-2830 |
| 사우스역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아동보호 | 617-748-2000 |
| 아동학대 | 800-792-5200 |
| 알고음/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온전연허 | 617-351-4500 |
| 텔레어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십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교정신청(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주요 단체

| | |
|--------------|--------------|
| 국제한국여성선교사연합회 | 978-407-7554 |
| 국제한국여성선교사연합회 | 603-889-8201 |
| 뉴잉글랜드공공협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 978-902-8305 |
| NE교육자협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문인협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신약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시인협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사추진위원회 | 603-894-5425 |
| 민주평통보통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톤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톤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미노인회 | 978-994-5490 |
| 재미교과기술회 | 857-998-7043 |
| 재향군인회 | 339-298-7187 |
| 세안인협회 | 508-826-5270 |
| 이화도도모인협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동맹회 | 781-424-5269 |
| FH한인경제인협회 | 401-481-4900 |
| 한국언어인협회(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북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95-1779 |
| 뉴잉글랜드 신약회 | 774-270-1948 |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톤 신약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랑 | 774-270-1948 |
| 서경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97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 |
| 성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도민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678-717-8800 |
| 한양대동문회 | 781-708-3160 |

언론

| | |
|-----------------|--------------|
| 보스톤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일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립교회 | 781-439-18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 |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구세군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한인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립교회 | 781-439-1840 |
| 내슈아한미음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장로교회 | 603-437-5134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264-6799 |
| 라이코스교회 | 978-387-1115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508-926-8236 |
|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 401-353-0983 |
|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 401-944-4500 |
| 리생명의장로교회 | 401-821-2311 |
| 메리맥 교회 | 978-806-1363 |
| 목양교회 | 617-223-1690 |
| 무지개교회 | 207-774-1617 |
| 말일한인교회 | 978-244-0691 |
| 렉싱턴 풍성교회 | 617-953-0856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864-5948 |
| 보스톤 국제교회 | 617-459-6479 |
| 보스톤 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사랑의교회 | 617-285-8870 |
|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 978-844-2404 |
|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 781-715-0571 |
| 보스톤 새로남교회 | 617-947-6765 |
| 보스톤 새생명교회 | 978-777-1800 |
| 보스톤 생명의 교회 | 978-578-6987 |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781-894-3958 |
| 보스톤 성결교회 | 781-275-8233 |
| 보스톤 성령교회 | 781-396-1004 |
| 보스톤 소망교회 | 781-686-5526 |
| 보스톤시온성교회 | 978-758-4541 |
| 보스톤신실교회 | 781-279-3270 |
| 보스톤 온누리교회 | 781-933-7044 |
|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장로교회 | 508-435-4579 |
| 보스톤 제일교회 | 617-458-2733 |
| 보스톤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톤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톤필그림교회 | 857-636-9985 |
| 보스톤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톤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톤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여우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톤교회 | 617-4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시온감리교회 | 6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978-534-3394 |
| 열방교회 | 617-620-3362 |
| 에이치 앤 앨리교회 | 978-274-2359 |
|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 413-549-6495 |
| 엘리스트 시온교회 | 413-549-9200 |
| 올스톤한인교회 | 617-642-7403 |
| 우스터 교회 | 508-799-4488 |
| 워싱턴시온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617-818-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영교회 | 978-390-6613 |
| 지구총방주교회 | 617-838-6434 |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 781-861-3877 |
| 켄싱턴장로교회 | 617-770-2755 |
| 하바드 한인교회 | 617-441-5211 |

불교

| | |
|----------|--------------|
| 문수사 | 781-224-0670 |
| 서운사 | 508-755-0212 |
| 심광사 | 617-787-1506 |
| 원불교 | |
| 원불교보스톤성당 | 617-666-1121 |

천주교

| | |
|--------------|--------------|
|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 617-558-2711 |
|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 401-499-8258 |

간판

| | |
|-------|--------------|
| 조이스간판 | 617-470-1083 |
|-------|--------------|

건강식품

| | |
|---------------|--------------|
|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781-238-0303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태 건축사 | 617-620-8242 |
| 김민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 617-999-9616 |
| 이블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항건축 | 617-688-6833 |
| 한샘(주)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골프개인

| | |
|---------|--------------|
| 골프레슨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 |
|-----------|--------------|
| ABC골프 | 603-401-7990 |
| 최현주 골프 레슨 |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 | |
|----------|--------------|
| 김양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주 회계사 | 781-944-2442 |
| 이명원 회계사 | 617-455-8073 |
| 정진수회계사 | 508-584-5860 |
| 한미선회계사 | 617-792-2355 |
| 한성애회계사 | 617-283-7151 |

꽃

| | |
|-------|--------------|
| 미스터화원 | 617-666-3116 |
| 데코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금융/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류영욱) | 617-777-2929 |
| 이중지리 | 781-591-2722 |
| 이종수파이낸스 |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노래방

| | |
|--------|--------------|
| 도레미노래방 | 617-783-8900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톤공립도서관 | 617-539-5400 |

당구장

| | |
|--------|--------------|
| 올스톤당구장 | 617-782-0969 |
|--------|--------------|

동물병원

| | |
|-----------|--------------|
| 김분수 동물병원 | 978-851-3626 |
| 윤상대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킴 동물병원 | 978-658-5282 |

떡/잔치/반찬

| | |
|-------|--------------|
| 형제떡집 | 978-975-3303 |
| 장음식주문 | 781-648-0584 |
| 한아름 | 617-547-8723 |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스커파티 | 978-468-0039 |
| 그레이스커파티클럽 | 617-331-1011 |
| 단오 헤어살롱 | 617-413-5372 |
| 뷰티풀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알구정동열굴방 | 617-438-0378 |
| 웨스트메인헤어 | 508-734-0446 |
| 티케이헤어디자인 | 508-768-7675 |
|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 978-272-7886 |
| 헤어 스크린 | 617-787-1735 |
| 헤어 센스 | 617-773-1220 |
| 헤어 Collage | 617-354-4660 |
| 미용실 코리아LEE | 617-913-3559 |
| AYER BEAUTY SALON | 978-772-6555 |
| 최희희헤어(Bless Image) | 617-818-5596 |
|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 508-879-7777 |

돌상 대여

| | |
|------|--------------|
| 해피돌상 | 617-583-2339 |
|------|--------------|

방송국

| | |
|-----------|--------------|
| 엔티비보스톤사입국 | 617-955-9112 |
|-----------|--------------|

변호사

| | |
|-------------------|--------------|
|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중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 203-852-9800 |
|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전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병원

| | |
|-----------------------|--------------------|
|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 617-696-7600 |
| 허버트뱅크(이재용) | 617-421-2282 |
| 한서동내과 | 401-722-0305 |
|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 401-726-0600 |
| 이윤노산부인과 | 508-427-3000 |
|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 617-566-1055 |
| 심리상담 | |
| 김자향심리치료사 | 781-769-8670 x6080 |
|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 508-728-0832 |
| 임나경심리상담사 | 617-738-9622 |
| 재활의학 김양일 | 617-901-0707 |
| 닥터스통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정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치과 김동원치과 | 978-689-9363 |
| 김정규 치과 | 860-623-2601 |
| 브라이언윤치과 | 978-655-1583 |
| 신영목 치과 | 617-265-5606 |
| 안 치과 | 781-647-8000 |
| 엑셀패밀리덴탈 | 617-471-6970 |
| 이영원치과 | 508-987-8228 |
| 이오셉치과 | 781-431-7295 |
| 케임브리지덴탈 | 617-492-8210 |
| 케임브리지덴탈/뷰티 | 617-871-1482 |
| 퀸지스아치과 | 617-471-2184 |
|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 781-894-1127 |
| 프록스팩트덴탈그룹 | 617-576-5300 |
| 한은애교정치과 | 781-894-1127 |
| 아이코덴탈 | 781-861-8978 |
| ASHLAND FAMILY DENTAL | 508-881-7272 |
| 장승혁보철임플란트 | 617-489-1470 |
| 전문치과 | 401-729-2711 |
|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 203-330-8080 |

보석

| | |
|-------|--------------|
| 국제보석사 | 617-523-2553 |
| 메타판보석 | 617-298-666 |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커머셜(사무실) 청소하실 분 부부팀 구합니다.
T. 508-944-4243

세탁소에서 홀 딜리버리(웨스턴지역) 드라이버와 테일러 (영어가능) 구함.
T. 603-401-0113

월-수, 니드햄지역 아이들(8살, 10살) 라이드와 집안일(식사와 빨래) 하실분.
T. 781-367-9687

뉴스타부동산 렉싱턴 사무실에서 Receptionist 로 일할 분을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인 이력서를 이메일(jy.p617@hotmail.com)로 보내주세요.

케임브리지 세탁소 풀 타침/파트 타임 일하실 분 구함.
T. 617-459-940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썬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아메리카 스타일 아침, 점심 레스토랑(Restaurant)하실 분.

3 Washington St, Somerville, MA
Rent(Lease) \$3,900/M + 장비포함
2,200 Square Foot

T. 781-773-598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2 베드룸 아파트먼트 렌트, 크랜스턴 로드아일랜드
T. 401-943-7178, 401-383-7311

N[구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구인]
품격있는 가게에서 아가씨 구합니다
침식제공, 좋은 보수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
T. 210-501-9448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N[매매]
10년된윙가게 월매상 \$42,000,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N[매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매 합니다
T. 478-213-3089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업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쉽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2015 청룡영화상, 송강호의 관록이나 유아인의 패기나

(서울=세계일보) 현화영 기자 = 2015년 한해 영화계의 대미를 장식할 '제3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26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영화제를 하루 앞두고 벌써부터 어떤 작품이 수상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올해 최다 부문 후보작은 지난 여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다.

지난 10일 청룡영화제 사무국이 공개한 후보작(자) 명단에 따르면 '암살'은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남우주연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등 총 11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이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이 10개 부문, 이준익 감독의 '사도'가 9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대종상 10관왕에 빛나는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은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이들 영화와 광경택 감독의 '극비수사'가 최우수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다. 최동훈, 류승완, 윤제균, 이준익, 광경택 등 감독들은 그대로 감독상 후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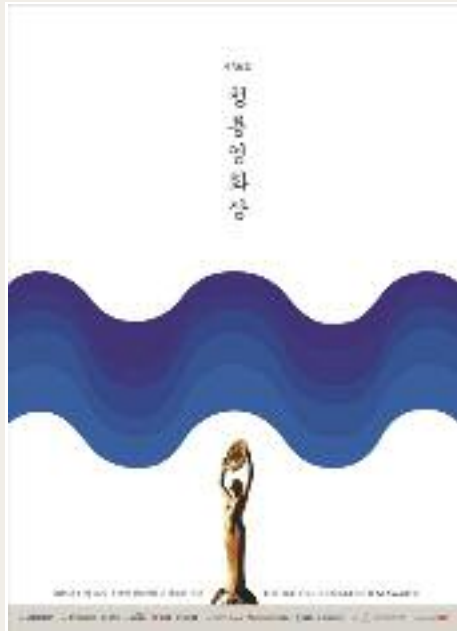
각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은 총 21편으로, '뷰티 인사이드' '스물' '서울1970' '극비수사' '소수의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남우주연상 후보는 유아인(사도)-정재영(지금맞고그때는틀리다)-송강호(사도)-이정재(암살)-황정민(베테랑) 등 다섯 후보로 압축됐다.

여우주연상 부문은 전지현(암살), 김혜수(차이나타운), 전도연(무뢰한), 한효주(뷰티 인사이드), 이정현(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부문도 경쟁이 치열하다. '스물' 강하늘, '소셜포비아' 변요한, '거인' 최우식, '악의 연대기' 박서준, '강남 1970' 이민호 등이 신인남우상 트로피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신인여우상 후보에는 '간신' 이유영, '강남 1970' 설현, '스물' 이유비, '마돈나' 권소현,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박소담 등이 노미네이트됐다.

후보작(자)들은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8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와 네티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다.



청룡영화상 시상식은 26일 오후 8시45분부터 S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사회는 배우 김혜수, 유준상이 맡아 네 번째 MC호흡을 맞추게 됐다. hhy@segye.com

20대 '꽃'청춘 VS 30대 '꽃'청춘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꽃보다 청춘' 시즌3 라인업이 공개됐다. 배우 조정석을 중심으로 그의 절친인 정우와 정상훈이 합류해 여행기를 꾸려간다. 이들이 펼치는 이야기는 지난 시즌1과 무엇이 다를까.

지난 24일 tvN 측 관계자는 조정석과 정우, 정상훈이 tvN '꽃보다 청춘'(이하 꽃청춘) 시즌3의 새로운 멤버로 발탁됐다고 알렸다. 또 이번 여행기는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직전 시즌인 '꽃청춘2'는 라오스에서 펼쳐지는 유연석, 손호준, 바로의 배낭 여행기에 초점을 맞췄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출연해 2013년 가장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가 됐던 이들은 이듬해 '꽃청춘'을 통해 대중 앞에 신선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 사랑받았다.

'꽃청춘2'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조금쯤은 낯설고 풋풋한 20대 청년들의 좌충우돌 배낭 여행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 본 적이 없던 손호준과 아이들로 활동하며 해외 투어로만 국내 밖을 나섰던 바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행에 가담시키는 유연석까지 훈훈하면서도 풋내나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꽃청춘'의 오늘

이었다.

'꽃청춘2'는 일단 시즌1, 2과 궤를 함께하면서도 구성에 따른 변주를 예상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조정석을 중심으로 그의 절친인 정우, 정상훈이라는 조합은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또 30대로 구성된 절친들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익숙한 이들이 여행을 통해 보여줄 친밀한 매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 사람은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배우들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일상에서 보여줄 솔직한 매력 또한 향후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듯하다. '꽃청춘' 시즌2의 멤버들이 극 중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판이한 매력을 어필해 사랑받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꽃청춘3' 세 사람의 반전 매력을 기대하고 있다.

마냥 풋풋하지는 않지만 30대의 농익은 청춘의 오늘을 보여줄 조정석과 정우, 정상훈의 여정을 시작했다.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라오스에 이어 미지의 여행지 아이슬란드로 향한 이들이 펼칠 좌충우돌 절친 여행기가 벌써부터 시청자들에게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응팔 화기애애 김성균네 "반갑구만, 반가워요"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응팔' 김성균, 라미란, 안재홍, 류준열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 인증샷이 공개됐다.

25일 공개된 사진 속에는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 촬영 중 네 사람의 다정 다감한 모습이 담겨있다.

실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가족셀카는 물론 극 중 아버지 김성균을 사이에 두고 허그를 하고 있는 안재홍과 류준열의 삼부자 허그,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서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성균의 모습이 사

진을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안기고 있다.

극 중 김성균네 가족은 사랑스러운 아재 김성균, 시크하지만 잔정 많은 라미란, 천재와 바보 사이의 첫째 아들 김정봉(안재홍), 촌데레 매력남 둘째 아들 김정환(류준열)의 조합으로 매회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50분 방송된다.

reddgreen35@news1.kr



'오마비' 소지섭 "신민아와 인연인지 우연인지"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오마이 비너스' 소지섭이 신민아에게 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24일 밤 10시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오마이 비너스'(극본 김은지/연출 김형석, 이나정)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쓰러진 후 응급실에 실려간 강주은(신민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영호(소지섭 분)는 강주은의 보호자 신분으로 그의 옆을 지켰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온 강주은의 전 연인 임우식(정겨운 분)은 김영호에게 어떤 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영호는 "자꾸 쓰러지고 구해주는 사이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고, 그순간 임우식은 마음이 복잡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lee1220@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1월 16일 ~ 11월 22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 | | | |
|----|------|-----------------------|-------|
| 1 | KBS2 |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 26.6% |
| 2 | MBC |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 25.3% |
| 3 | KBS1 |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 20.6% |
| 4 | SBS | SBS스포츠타구(프리미어12한국:미국) | 18.0% |
| 5 | MBC | 주말드라마(엄마) | 16.6% |
| 6 | KBS1 | 가요무대 | 16.1% |
| 7 | KBS1 | KBS9시뉴스 | 15.9% |
| 8 | SBS |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 14.7% |
| 9 | MBC | 무한도전 | 14.1% |
| 10 | MBC |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 13.9% |

Tbo Play 주간시청률

| | | |
|----|------|-----------------|
| 1 | MBC | 일일연속극(위대한조강지처) |
| 2 | SBS |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
| 3 | KBS2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KBS1 |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
| 5 | KBS1 |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
| 6 | SBS |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
| 7 | MBC |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
| 8 | MBC |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
| 9 | SBS | 주말특별기획(애인있어요) |
| 10 | SBS |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 | |
|----|--------------------------------|-------------|
| 01 | Boys And Girls (Feat. Babylon) | 지코 (ZICO) |
| 02 | 콜잼 | 다이내믹 듀오 |
| 03 | 못먹는 감 (Sour Grapes) | San E |
| 04 | 지못미 | iKON |
| 05 | 안아보자 | 포맨 |
| 06 | 또 다시 사랑 | 임창정 |
| 07 | 스물셋 | 아이유 |
| 08 | I (Feat. 버벌진트) | 태연(Taeyeon) |
| 09 | No Make Up | Zion.T |
| 10 | 4 Walls | f(x) |

숫자 퍼즐 (Sudoku)

| | | | | | | | | |
|---|---|---|---|---|---|---|---|---|
| 2 | 7 | | | | | | 1 | |
| | | 3 | 1 | | | 4 | | |
| 4 | | 9 | 8 | | 2 | | | |
| 8 | 2 | 1 | 9 | 6 | | | | 4 |
| 9 | | | | 1 | 7 | 2 | 8 | 3 |
| | | | 6 | | 9 | 1 | | 7 |
| | | 8 | | | 1 | 5 | | |
| | 6 | | | | | | 2 | 9 |

11월 29일 - 12월 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 | |
|--|---|--|
| <p>쥐띠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p> <p>●운수: 자기보다 못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씩은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금전: 뜻하지 않은 일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애정: 일상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상대와 인간적 정을 나누다보면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2일 길일. 29, 5일 주의.</p> | <p>소띠 금전적으로 호전되고</p> <p>●운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유망한 주입니다. 성공을 위한 새로운 지식 습득은 필수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던 귀인의 도움으로 쉽게 계약이 성사되니 기쁨이 매우 큰 주입니다. ●애정: 몰래하는 사랑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상대와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p> | <p>범띠 주위를 두루 살펴서</p> <p>●운수: 마음을 조금씩 갖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계획은 어렵더라도 다음 기회로 미루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두루 살펴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애정: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한번만 더 참아 보세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하는 때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0, 4일 길일. 29, 1일 주의.</p> |
| <p>토끼띠 처세술이 빛을 보는</p> <p>●운수: 적극적인 처세술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특히 일의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일석이조의 운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주입니다. ●애정: 오랫동안 기다린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받아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1일 길일. 29, 2일 주의.</p> | <p>용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p> <p>●운수: 더 이상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 잘 풀리지만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애정: 벌여놓은 일로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자신보다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p> | <p>뱀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p> <p>●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계획이 산처럼 쌓였으나 주위가 산만하고 안정을 요할 때입니다. ●금전: 매매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왕이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애정: 누군가 프로젝트를 하고 대담을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p> |
| <p>말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p> <p>●운수: 무리하게 일을 하니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군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하는 때입니다. ●금전: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복구 심리나 보상 심리가 강해지는 주입니다. 도리어 일이 그르칠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 사랑 운은 난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서로의 입장이 역전될 가능성이 클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2, 5일 주의.</p> | <p>양띠 화가 복으로 바뀌는</p> <p>●운수: 바다나 호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물을 보는 것이 행운의 힘을 주는 시기입니다. ●금전: 화가 복으로 바뀌는 주입니다. 그 동안 잃었던 것이나 부족했던 것을 만회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애정: 사랑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기입니다. 갑자기 강하게 끌어당기면 상대가 어리둥절해 하며 따라올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5일 길일. 30, 3일 주의.</p> | <p>원숭이띠 선남선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p> <p>●운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창업의 시기로 좋은 주입니다. 그러나 동업문제는 신중히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 매대로 인한 이익이 큰 시기입니다. 사거나 파는 것 모두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애정: 선남선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때입니다. 마음에 품은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에 좋은 주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2일 길일. 4, 5일 주의.</p> |
| <p>닭띠 상대의 마음 씩씩이를 보아야</p> <p>●운수: 계약을 잘못하면 후회가 오래 가게 되니 여러모로 잘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너무 강하면 부러 집니다. 마음의 자제 능력이 없으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애정: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상대의 마음 씩씩이를 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에 빠져서 사람을 사귀면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3일 길일. 2, 5일 주의.</p> | <p>개띠 다시 잘 해볼까 하는</p> <p>●운수: 혼자서만 마음을 졸이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전: 돈 관계가 애매해지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부른 투자는 화를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미 늦었다고 말할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다시 잘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5일 길일. 2, 3일 주의.</p> | <p>돼지띠 미리부터 대비해야</p> <p>●운수: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아서 계획을 한 곳에 정하지 못하는군요. 안정감을 찾아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금전: 금전적인 용동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대비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사소한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p> |

컴백 앞둔 싸이, V앱 6일 연속 생방송 진행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가수 싸이가 개인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7집의 신곡 일부를 최초로 공개한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는 새 앨범 공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11시 네이버 V앱 생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싸이는 방송을 통해 새 앨범에 담긴 신곡들을 '맛보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새 앨범 공개 전 음원의 일부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오랜 시간 컴백을 기다려 준 팬들에 대한 싸이의 특급 팬서비스로 기대를 모은다.

싸이는 지난 해 개최한 연말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4'에서 팬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싸이다운 새 앨범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생방송은 과연 신곡들에서 싸이만의 독특한 재기발랄함과 개성이 어떤 스타일로 표출됐는지 먼저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 달 1일 0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이어 같은 달

11.24 - 11.29 | EVERY NIGHT AT 11PM
WITH NAVER
6일간의 쌍방 소통 '특급생방'

세계최초 신곡 유출 예고제!!
7집 앨범 전곡 맛배기 애간장 서비스!!
김이 모락모락~ 원작자의 변!!
2년 묵은 싸이 입 털 준비 완료!!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말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5-공연의 갯싸이'를 개최하며 신곡들의 퍼포먼스를 팬들 앞에 선보인다.
lee1220@news1.kr



AOA 설현 찬미, '섹시 산타걸'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AOA 설현과 찬미가 섹시 산타걸로 변신했다.

설현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막내 찬미. MBC '위대한 유산' 11월 26일 밤 11시 10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산타걸로 변신한 설현과 찬미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몸에 밀착되는 오프숄더 산타걸 의상으

로 군살 없는 S라인과 짝짝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한껏 뽐냈다. 또 서로를 끌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찬미가 출연하는 '위대한 유산'은 부모가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 자식이 동반 출근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26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된다.

star@news1.kr

유재석, 서프라이즈 촬영 스틸 "봉술의 달인 산둥꼬마"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김태호 PD가 유재석의 '서프라이즈'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MBC 김태호 PD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봉술의 달인 산둥꼬마 #무한도전 #무도드림 #서프라이즈"라는 글과 함께 유재석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촬영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삭발 분장을 한 유재석이 군복을 입은 채

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무도드림 특집에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을 다 작품에 24시간 빌려준다는 콘셉트로 자선경매쇼가 펼쳐졌다. 이날 유재석은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낙찰됐고,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애청자인 정형돈을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0400 - G07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포항근로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콤살벌 패밀리' 물만난 정준호 표 코믹연기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정준호가 미친 코믹 연기로 안방극장의 혼을 속 빼놓았다. 지난 18일 밤 10시 첫 방송된 MBC 새 수목 드라마 '달콤살벌 패밀리'(극본 손근주, 김지은/ 연출 강대선)에서 웃픈 보스 아빠 윤태수로 돌아온 정준호가 구멍없는 코믹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초토화시켰다.

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스지만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한없이 작아지고 마는 안방 서열 꼴찌 아빠다. 홀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애잔함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모습은 우리네 아버지상을 고스란히 답아냈다. "뒤통수 죽겠네~"를 외치며 고된 하루하루에 시달리는 태수는 실상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해하는 평범한 가장이었

다. 영화 제작자로 전직을 꿈꾸는 것 역시 가족들에게 좀 더 떳떳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윤태수 캐릭터는 배우 정준호를 만나 '물만난 고기'가 됐다. 삼선 추리닝을 입고 맛깔난 충청도 사투리를 소화해내는 달콤한 아빠와 살벌한 보스를 오가는 반전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즐겁게 사로잡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SBS | 돌아온 황금복 |
| 3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KBS | 우리집 꿀단지 |
| 5 | KBS | 가족을 지켜라 |
| 6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 7 | MBC | 내 딸 금사월 |
| 8 | MBC | 내일도 승리 |
| 9 | SBS | 애인있어요 |
| 10 | SBS | 육룡이 나르샤 |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달콤살벌 패밀리 |
| 2 | CJ E&M | 나도 영화 감독이다 |
| 3 | SBS | KPOP스타 시즌5 |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 지진희, 성유리 |
| 2 | 성난 변호사 | 이선균, 김고은 |

'성난 변호사', 1분도 방심할 수 없는 반전 추격극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짜증 전문 배우'로 거듭난 이선균의 신작 '성난 변호사'가 '끝까지 간다'와 비교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선균은 앞서 '끝까지 간다'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검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사건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형사 고건수로 분해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캐릭터를 탁월하게 표현해낸 것. '성난 변호사'에서 그는 실력과 매력, 모든 것을 갖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 역으로 다

시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매력은 물론 위기의 순간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하며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를 이끈다. 두 작품이 닮은 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짜릿한 스토리다. '성난 변호사'에서는 승소를 확인하는 순간, 뒤통수 제대로 맞은 변호사 변호성이 사건을 되짚어 가는 과정을 비롯, 영화 속 예측하지 못한 순간 벌어지는 반전은 풍성한 재미를 전하며 몰입도를 배가시킨다. uu84@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24.99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a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su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6만~7만, Asking **\$20,000**
6.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해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1.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12. 렌트 : 25 Baker St, Belmont, 3bed 1.5 bath 1,500sf, 벨몬트 High school에서 5분거리, **\$2,2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4회

'안전지대'란 꿈같은 얘기인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엿그제 보스턴 집에 도착했다. 세계정세가 하도 어수선하니 그래도 내 동네에 도착하니 안도의 숨이탈까 우선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켜본다. 한국여행 중에 만난 국제뉴스였던 프랑스 파리 도심에 무차별하게 공격한 무슬림 아이에스의 테러. 그 후에 경고로 떠오른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과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뉴스 기사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과 통화 중에 보스턴도 테러 경고 지역이던데 괜찮으냐고 물으니 그냥 피식 웃는다. 보스턴 시내에 남편의 비즈니스 공간이 있고 아이 둘 학교도 시내에 있으니 걱정이 되었다.

세상살이가 늘 그렇듯이 마음에 근심 하나가 생기는 셈이다. 어찌 나 혼자만의 근심일까 마는 각 개인마다 각 나라마다 세계 각국에서 요즘 겪는 일인 것을 말이다. 미국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여기저기 안팎이 어수선할 때에는 그저 조용히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업무가 있어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저

하늘에 자신을 맡기고 하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수밖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는가. 불안한 마음이야 감출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밝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먹구름으로 뒤덮이다 갑작스럽게 천둥·번개 번쩍거리는 날이 있다. 이런 날이면 언제나 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번개 사정없이 내리치는 날에는 하늘 아래의 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오른다. 요즘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진정 '안전지대'란 있긴 있는 것일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 나라 저 나라 구석마다 여기저기서 속절없이 테러에 폭격에 지진에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며칠 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가씨를 만났다. 멕시코에 친구가 있어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한다. 결혼 전에 다니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많이 다니면 좋을 것이라고 얘길 해주었다. 결혼하면 달린 가족이 있어 혼자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다가 미국 디트로이트에 도착해 반나절이 지나 보스턴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뉴스를 보다가 멕시코 시티에 수십 초 간 건물들이 흔들리는 강한 진동(5.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멕시코로 여행을 간다면 아가씨가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한국 인터넷 뉴스를 둘러보다가 어제 11월 24일 페루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이 아닌가. 페루에는 지난 8월 중순에 11박 12일의 여행을 다녀왔던 곳이다. 그곳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 더욱 아찔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요즘 며칠 정신없이 어수선한 세계 속 뉴스에 집중하다 보니 너무 민감해졌나 싶다. 어찌 됐든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현장의 눈뜨고 볼 수조차 없을 만큼 참담한 모습을 보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그것이 어찌 남의 일일까. 그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아린 것이다. 누구의

잘못이냐고 그 누구에게 물어야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어지러운 세상 안과 밖의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아리고 소리 내도 메아리 없는 이 애통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행해진다. 누구에게 탓을 하며 그 누구를 원망해야 옳을까. 탓을 하고 원망하면 속이 풀리긴 풀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깨끗이 잊히는 것일까.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작은 개인의 생각에서나 큰 나라의 국제적 문제 해결에서일지라도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나만 안전하고 내 가족만 안전하면 최고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더불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안전지대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 안에서의 든든한 정신과 마음 그리고 튼튼한 몸이 우선이다. 그 어디에도 휩싸이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주체성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국가에서의 역할이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지대'가 아닐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꿈을 짚는 사진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올해는 예년과 사뭇 다르지 않다. 아직 춥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가, 크리스마스가 아득하게 여겨진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게다. 칠면조고기는 드셨는지.

어린 내가 궁금하게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다 했다. 우리 집 굴뚝은 좁디 좁았다. 굴뚝으로 들어온다면 거대한 몸집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 안방 온돌밑을 기어야 하고, 아궁이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부엌에 다다르고 앞마당으로 나오게 된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면 될 것을 왜 굴뚝으로 들어 올까. 연탄불은 무지 뜨거울텐데, 연탄가스도 중독되지는 않을 겐가. 걱정은 또 있었다. 방으로 들어오려면, 닫힌 마루문을 열어야 한다. 어떻게 닫힌문을 열고

들어 올수 있을겐가. 연탄가스처럼 문틈으로 스며드는 건가. 게다가 선물 보따리가 좀 무거운가. 도무지 이해할 수없는 산타 할아버지여, 우리집에 들어오기 어려워서 그랬을까. 산타 할아버지는 한번도 우리집을 찾지 않았다. 물론 선물도 없었다. 시인이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읊었다.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희미한 고향집과 어머니,
그 개구쟁이들,
그들을 도로 돌려주소서.
조그만 카드 속에 정성을 담은
그 소년들도 돌려주소서.
...
한번 더 그 종소리 듣게 하시고

눈 내리는 아침을 걷게 하소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소서
(김시태,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성탄절 선물은 산타크로스가 주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 차렸다. 그러고도 한참이 지났다. 여전히 내 부모님으로부터는 어떤 선물도 없었다. 스스로 착한 어린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자책(?)하던 중이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그해 겨울이었다. 잠결에 머릿말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아버지 냄새가 났다. 눈을 뜨던 내 모습에서 아버지는 계면쩍은 얼굴을 지었다. 아버지는 뭔가를 내 머릿말에 놓는 중이었다. 스케이트와 동화책 한 권이었다. 아버지께 묻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직접 사오셨을리는 없다. 심증은 가는데 물

증은 없다. 하지만 아버지 선배분에게서 받으신 거다. '아이나 가져다 줘라' 고 말씀 들으셨을 터. 겨울 내내 내게는 신나는 방학이었다. 동화책을 몽땅 읽었고, 스케이트장에 매일 출근했다. 그 해에만 특별히 내가 착한 소년이었고,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갔다.

'꿈을 짚는 사진관.' 그해 산타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강소천 선생 동화책 제목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서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아버지 꿈을 사진으로 찍어 낼수 있을까. 꿈을 짚던 사진관은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 올해에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내 욕심이 과한 건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 2:11)



고 김영삼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2일 폐혈증으로 서거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민정부시대를
활짝 열었던 기념비적 대통령입니다.
재임중, 역사 바로세우기, 50여 명에 달하는
군 실세 하나회 척결,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등
역사의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에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8. 샌드크리크 대학살 (3)

사이엔족과 아라파호족에 대한 샌드크리크 대학살 (계속)

대학살의 날로부터 140여년이 지난 2007년에 와서야 샌드크리크 현장이 국가적기념유적지로 지정되었고, 1996년에는 미국감리교 총회가 감리교목사였던 시빙턴 대령의 만행에 대하여 인디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 12월 3일 대학살 150주기 기념행사에서 콜로라도 주지사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는 과거 잘못에 대하여 콜로라도 주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파우더 강 지역의 북부 사이엔과 합류 광란의 살육 현장에서도 도망치거나 웅덩이에 숨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200리길을 걸어서 젊은 전사들이 머물고 있던 스모키힐의 사냥터로 갔다. 전사들은 가족 중 일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낫을 잃고 통곡했다. 정신을 차린 전사들은 뒤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샌드크리크의 만행은 인디언 상호간의 연락을 통해서 모든 평원 인디언도 다 알게 되었고, 백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하여 하루빨리 보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백인에 대한 첫 보복으로, 대학살 이듬해인 1865년 1월 7일에 개병대 지파(Dog Soldiers)를 포함한 남부사이엔족, 북부 아라파호족 그

리고 라코타 수우족 연합전사들은 남 플레이트 강 유역에 있는 콜로라도 주의 줄스버그(Julesburg) 일대에서 백인들을 여러 차례 습격했다. 남부사이엔족의 전설적 전투영웅인 로만 노즈(Roman Nose)가 이와 같은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지휘하였다. 당시 줄스버그는 서부로 향하는 마차길(Overland Trail)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중의 하나였다. 전선을 끊어버리고 역마차역과 군 초소를 공격하고 정착 마을을 불태워버린 줄스버그 전투(Battle of Julesburg)로 인해서 텐버에서는 외부와의 통신이 마비되고 식량이 부족하여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1차 복수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인디언들은 큰 축하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조만간 그들은 더 큰 대포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인디언에게 공격해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야만 했다.

주로 노인과 여자들로 구성된 약 400명의 인디언들은 검은 주전자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보다 따뜻한 아칸소 강 남부지역에 살고 있던 남부 아라파호족, 카이오와족, 그리고 코만치족과 합류했다. 반면, 대부분의 추장과 젊은 전사들이 주축이 된 나머지 약 3000명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부 사이엔족과 합류하였다. 북부 사이엔족이 살고 있는 파우더 강(Powder) 유역에는 레드 클라우드가 추장으로 있는 오글라라 라코타 부족도 함께 살

고 있었는데 그 일대의 인디언 수는 8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북부 사이엔족이 머물고 있던 파우더 강까지는 약 500km의 거리였는데 겨울이 한창인 1월말에 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여정이였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오도중에 마차열차나 군 요새 등을 습격하여 많은 보급품을 약탈하고 백인 목장에서 수많은 가축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식량 문제는 없었다. 이들은 이동 중에 남 플레이트 강 계곡 일대를 지나가면서 2월 2일과 3일에 걸쳐 줄스버그의 정착촌을 불태우고 인근 Lodgepole Creek에 있던 전신중계소에도 불을 지르는 등 남아 있는 시설들을 다시 한번 파괴하였다. 줄스버그를 지나 남 플레이트 강을 건너 파우더 강으로 가는 도중에 미군과 Mud springs와 Rush Creek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줄스버그 전투를 포함하여 그들이 북부 사이엔족을 찾아가는 도중에 백인을 상대로 벌인 보복 전투에서 샌드크리크에서 희생당한 인디언의 수보다 더 많은 백인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디언들의 파괴행위로 마차길 160km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한다. 미군측 사망자 가운데는 샌드크리크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의 시체는 인디언들이 토막 내었다고 한다.

아칸소 강 남쪽의 아라파호 족과 합류
한편 검은 주전자를 따라 나선 남부사이엔

족은 아칸소 강 남쪽으로 내려와 아라파호족과 합류했다. 그곳에는 들소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미군들이 무서워 스모키힐 지역으로 사냥하러 나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865년 늦여름에 백인 정부관리들이 검은 주전자와 아라파호족 추장인 작은 갈까마귀(Little Raven)를 찾아왔다. 그들은 우선 인디언 추장들에게 샌드크리크 학살사건에 대하여 링컨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들이 인디언마을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콜로라도 일대의 넓은 평원지역을 인디언으로부터 가로채 이미 수많은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무단점유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조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이엔과 아라파호가 조상 대대로 삶을 일구어온 땅을 순수히 내놓을 리가 없었기에 협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여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백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법이라 이번에도 그해 10월 14일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아칸소 강 남쪽으로 내려가 카이오와족과 함께 사는 데에 동의하는 이른바 'Little Arkansas Treaty' 에 서명해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8 화랑세기, 필사자 박창화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있다. 다시 한 번 이 화랑세기의 진위를 떠나 박창화의 간략한 생애를 따라간 후 그가 필사한 '화랑세기' 를 타고 신라시대로 돌아가서 화랑도花郎徒의 수장인 '풍월주' 를 중심으로 엮어진 화랑세기를 신라인의 눈으로 화랑도花郎道를 구경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음미해 본다.

박창화는 1889년 5월 9일에 태어났다. 호는 남당南堂이고 자는 넘조세훈이며 또 다른 이름은 섭래變來이다. 1909년에 교관에 임명되어 사범학교에 들어갔다. 졸업 후 육전, 영동 그리고 청주의 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배재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고 그 후로는 중국을 여행하였으며, 1924년 경에 일본으로 가서 강역疆域연구를 계속하였고, 예각藝閣 즉 서릉부 도서료로 20여년간 근무한 후 1942년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청주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 그는 1962년 3월 6일에 74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는 어려서 부터 한학을 공부하였고,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다. 7세에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도 겪었으며 그 슬픔을 이기고자 출가하려고 여러번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태어나면서 부터 몸이 허약하여 무녀를 수양모로 모셨고, 또한 동생과 침뿌리를 다투어 켈 정도로 어린시절을 어

렵게 보냈다. 그러나 그는 독서와 서당교육을 놓이처럼 좋아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였다. 그는 어려서 부터 동년배의 학생들을 뛰어넘는 우수한 인재였다. 7세 때는 천자문을 끝낼 정도로 명석하였고, 9세 때는 당대의 거유巨儒 전량제田良齊 김사문金斯文과 당당하게 시문을 주고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는 신동으로 꼽히는 인재였다. 그의 명석함과 우수성으로 인하여 사범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었으며 교사생활은 물론 서릉부의 도서료로서도 근무할 수 있었다. 그는 다수의 다양한 저작과 유고를 남겼다. 하지만 당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은 그가 전거로 제시한 서책이 근세의 것으로 엄정한 사료비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고대의 강역이 한반도 안으로 위축된 것이 이세민과 주원장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조선 초기 중국의 책봉을 원했던 이성계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는 관점을 보였다.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국내사료수집팀(김대길, 박대중)이 장손 박인규가 보관하고 있던 남당 박창화의 유고, 즉 년보와 시문, 강역론, 고구려 백제 신라 왕기를 비롯하여 화랑세기 관련저작을 일괄 촬영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필사본(화랑세기)를 진서로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다.155)

153) 신라 진흥왕 때 미실이 첫사랑 5대 풍

월주 사다함을 전쟁터로 보내며 부른 노래.(파랑가波浪歌라고도 부른다)

바람이 불되/ 님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치되/ 님 앞에 치지 말고/ 어서 어서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아 보고/ 아아, 님이여!/ 잠은 손을/ 차마 뿌리치려오.

154) 사다함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왕족과 혼인한미실을 못잊어 울며 지는 노래.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너 나의 콩밭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 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짓게 하며/ 마음 아프고 여위어 죽게 하는가/ 나는 죽어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 신병되리/ 전주에게 날아들어 보호하여/ 호신되어 매일아침, 매일저녁/ 전군 부처 보호하여/ 만년, 천년 오래 죽지 않게 하리...

155) 참고문헌: '南堂 朴昌和와 그의 遺稿에 대한 몇 가지 문제' -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바로 잡습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5)'의 숙명공주는 법흥왕의 딸이 아닌 태종과 지소태후의 딸입니다.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미 국 육 군 사 관 학 한 인 회 사 관 들 한 반 도 의 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후원



2 0 1 5 년 1 2 월
성 요 한
2 6 0 0 M a s s
L e x i n g t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가족의 '끈' 을 끊는다고, 천륜의 연(然)을 끊을 수 있을까?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IX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단어 그대로 'Thanks' (감사함)을 'Giving' (전하는) 날이다. 감사함을 전하는데, 반응이 웬지 시큰둥하다. 백발백중 그 이유는 관계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내재한 상처가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처받은 이는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상처를 준 이는 진정한 사과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난 번 칼럼을 통해 가족이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상처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상처를 표현 했는데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생긴 앙금이 가족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해,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 해보기를 권유한다. 만약, 상처를 준 가족이 수동태의 사과법을 사용한다면, 당당히 그 사과법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火)를 더 일으키고 있다고 표현해보자. 이렇게 솔직하려는 이유가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닌,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 때문이고, 형제나 자매와의 이 천륜의 끈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용기를 내었다고 몸을 낮추어 말해보자. 또한, 형제와 자매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축복받은 관계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 지 표현해보자.

상처가 아물지 않은 관계는 감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힘들다. 수동태의 사과를 피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관계는 회복된다. 수동태의 사과를 다시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사과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부 사과' : "만약, 내가 그랬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너가 오편을 하고 있는것 같아". 상처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애매하게 만들 어버리는 동시에 잘못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돌리는 공격이다. '비겁한 사과' : "실수는 있었지만,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남이나 다른 일에 핑계를 돌린다. '변명하는 사과' : 미안해, 하지만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을

깜빡하고 늦었다". 양해를 구하는 듯, 변명하는 사과다. '기만하는 사과' : "교회,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용서를 빌었고, 예수님도 나를 용서했어. 그런데 왜 너는 안 되는거니?"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며, 용서 못하는 일을 오히려 훈계하려 든다. '적반하장 사과' "그 옛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난 기분 나쁜 일은 마음에 담지않고 다 잊어버리면서 사는데. 그런 쪼잔한 일을 마음에 담고 살면 병 나!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사과할게!" 마치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듯 사과를 한다.

상처를 받은 즉시, 사과를 받으려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상처를 받아도 사과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연중, 너가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 하면 나쁜 행동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도 따지지 않고 참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쁠수록, 상처 난 화(火)를 더 억지로 숨기려고 웃는 가면을 쓴다. 기분 나쁘다고 대번에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웃기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소외되거나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화(火)를 품는 것보다,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임을 말한다. 일단, 화(火)를 풀지 않고 마음에 두면, 건강에 좋지 않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 준 이에게 앙심을 품으면서 그 화(火)가 독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화(火)의 독은 마음의 칼을 갈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게 되거나, 관계의 끈을 야멸차게 잘라버리면서 복수를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화(火)를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훨씬 올바른 방법인 것이다. 에페소 4장 26절도 필자의 견해를 도와준다.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화(火)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성경 글귀의 의미를 필자는 이렇게 본다. '화(火)를 마음에 하루 이상 담지 말고 풀어야 한다. 마음에 품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종교가가 아니기에 필자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끈을 놓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다.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족과 이어진 천륜의 끈이다. 가족과 단절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다른 이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웬지 가슴 밑바닥이 항상 서늘해지는 '소외감' 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SNS로 스마트폰 중독이 될 지경으로 페이스북 친구, 카톡들이 많은데, 이 놈의 고질병, 소외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륜은 끊으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끊어진 끈을 이으려 하는 편이 훨씬 쉽고 옳다. 기쁜 일이나 위기에 처해보면 안다. 인간 관계를 흉내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쁜 일을 같이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을... 위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깊게 교류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친밀한 교류의 뿌리는 싫든 좋든, 사랑하던 미워하던 가족이라는 관계의 끈에 있다. 관계의 뿌리인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기 어렵다. 세상은 가족관계의 끈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과의 단절은 세상과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 본 사람 만이 안다.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족과의 끈을 다시 이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끈을 끊지 말아야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관계의 단절은 중독으로 이어질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중독에는 일 중독,

흡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구매 중독 등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피터 코헨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다. "사람들에게는 교류하려는 타고난 자연스런 욕구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고립되거나,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를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안도감을 찾기 위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된다.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성인물이 될 수도 있고, 코카인, 대마초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와 결속하고 교류한다. 교류는 사람으로서 원하는 것이다." 그 예로, 스마트폰의 SNS 교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쉽다. 요한 하리 (Johann Hari)는 테드톡 (TED Talk)을 통해 우리가 중독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중독의 원인은 '약물' 이 아닌 '소통의 단절' 이 진짜 원인이라고 한다. 요한하리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잘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깊은 친밀감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인간 교류' 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소통의 단절이 늘어날수록 중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중독의 반대는 관계라는 것이다.

세상이 여기 저기 중독으로 소외된 관계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선을 통해 세상과 이어져있다. 그 어느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친밀한 관계의 끈' 이 끊기면, 세상과도 친밀해지기가 힘이든다. 상처를 표현해서 품었던 화(火)를 풀고, 진정한 사과를 하여 가족의 명든 상처를 보듬어보자. 용기내어, 어느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끈' 천륜의 뿌리,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보자. 그러면, 세상은 중독되지 않고, 밝은 세상이 된다. 우리는 소외되지 않는다. 외롭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한국에서 선봉적 인기를 끈 제품

- 숫자버튼을 이용한 호간번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로복,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연락 가능
- 말하지 리콜이론 슬립메터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가 재생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체음
- 핸드스토폴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큰롤
• 성경 송양막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확립)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특별 할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월 \$ 24.99

프리미엄 무제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NOW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9) 미래의 두려움

인간인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주식시장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전설적인 뮤추얼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Peter Lynch)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혹은 예측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발생한 비용은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발생한 손실보다도 훨씬 더 크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골프 친구인 존과 톰은 각각 2007년 1월 1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자꾸 내려갑니다. 겁에 질린 존은 2009년 1월 2일 투자 돈을 전부 찾아 침대 밑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 1월 2일에 다시 같은 종목에 재투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투자 돈을 이리저리 옮긴 존

과는 달리 친구인 톰은 비관적인 주식시장 소식을 멀리하고 열심히 일하며 주말에 골프를 즐기면서 투자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시작했던 투자를 2015년 9월 30일에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를 한껏 이용한 존의 투자 결과는 15.1% (연평균 1.63%)로 증가했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 톰의 수익률은 62% (연평균 5.70%)로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뉴어티(annuity) 판매입니다. 어뉴어티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당신의 수익률도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은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수입보장을 6% 한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받는 6%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파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총괄적인 투자목적: 은퇴자금인지 학자금 마련인지를 설정한 다음 꾸준히 고정적인 투자를 하며 일 년에 한두 번 투자목적 review 합니다.

*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투자목적과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성을 택할 것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분배를 합니다.

* 투자목적이 진정한 목적: 투자를 하다 보면 ‘대박’ 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는 투자 위험성이 높습니다. 가끔 운이 좋아 투자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 은 계속하여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프친구가 투자해서 ‘대박’ 이라고 하면 솔깃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

다.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분산투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외국주식, 미국주식, 미국주식에서도 대기업회사, 작은 회사, 부동산, 등 어느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여기저기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는 다우 존스(Dow Jones)가 상승하면 팔고 내려가면 투자하겠다는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0년 초부터 S&P 500에 2014년 말까지 투자했으면 연 수익률이 13%였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한 단 19일 동안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0%가 됩니다. 상승한 19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상해] Police Report (1)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 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을 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가족 혹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통사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인 Police Report는 보험청구를 하는데도 필요하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Police Report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및 자동차 보험과 당시 사람들의 부상이나 차의 손상 정도,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게 된 연유에 대해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더불어 당사자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합니다.

한국 분들 중 사고가 나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주변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경찰 출동 지연이 흔한 데다가, 상대가 바쁘다며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당황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후 교통사고 보상 소송을 하고자 해도 사고가 났다는 Police Report가 없고, 사고에 연관된 사람들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같이 기다렸다가 Police Report에 인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경찰의 경우, 신체 부상이나 \$1,000 이상의 재산 손해 혹은 사망자가 없다면 Police Report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은 Police Report 작성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상이 눈에 보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통증이나 고통이 느껴진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부상이 의심된다면 경찰에게 “I think I was injured” 라고 말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게 또는 다른 이에게 사고 정황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I am sorry”, “It was my fault”, “I was not paying attention”, “I could have avoided..” 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거나 사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표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책임 및 과실은 추후 모든 정황과 증거 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등의 표현은 차후 교통사고 관련 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상황만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 또한 차후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대해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만약 부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사고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횡설수설하는 것보다는 경찰에게 차후에 물어볼 것을 요청하도록 하

십시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혹은 다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감정이고 사고의 원인이 누구였는지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100세 동반자 베델헬스전자

Fuji 의료기 판매의자
 100% 안전
 100% 만족
 100% 신뢰

Happy Thanksgiving

" 마사지체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의료기입니다
 50여년간 개발된 명품 안마의자를 체험하시고 선택하세요 "

마사지체어 추수감사절 대세일

이제 마사지체어는 온가족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성능을 꼭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세요

- 마사지체어구입시
맞맞사지기
무료 증정
- 단체 선물용 소형 안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 전문 기술자 상주
(Part & Labor)
최대 7년 / Full Warranty

INADA 미용부공식 대리점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맛사지체어 판매개시

**Dream Wave
Massage Chair**



**Inada Flex 3s
Massage Chair**



**\$7,999
\$4,999**
Made in Japan

**Fuji Cyber Relax
FJ-3650B**



90개 롤
\$80/롤
3년 Warranty

조각이 간편하여 호도 선풍로
개발된 신기술, 4개의 마사지 롤로
강력한 진동 마사지 체어

**Fuji Cyber Relax
EC-3800**



90개 롤
\$120/롤
7년 Warranty

세계최초 4D 방식, 초강력 마사지 기법
중용방진 지퍼용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맛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Fuji Cyber Relax
ZERO-B
FJ-4600B**



90개 롤
\$100/롤
5년 Warranty

3D 방식 배구, 일본, 중국, 영국 전문 마사지
기법, 한국전통에 가장 인기 많은 제품

**Fuji
Cyber Relax
FJ-5500**



90개 롤
\$100/롤
5년 Warranty

L자형 마사지 기법, 허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 롤이 가동됨

**Panasonic
EP-MA73**



90개 롤
\$125/롤
7년 Warranty

ULTRA 3D 방식, 대각도 마사지롤, Multi
Heat 기법, Hot Stone 시로기법

**Panasonic
EP-MA70**



90개 롤
\$110/롤
5년 Warranty

3D 방식 배구 마사지기법과
스츠세팅 기법

**Body Slimmer
Special Sale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in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7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압구 높이
조절가능**



**특별세입
\$600 → \$450**

**베델전자
한남제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888-809-1167

**하이트론스
H 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857
201-417-5350 / 201-941-0024

패츠 잇다른 주전 리시버 부상, 브롱코스전 해법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어츠의 무패 행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다. 특히 쿼터백 탐 브래디의 패스를 받아 줄 리시버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보여 주고 있는 브롱코스를 상대해야 한다.

이번 시즌 브래디의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8명의 선수 중 이미 5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거나 시즌이 끝날 때까지 복귀가 불가능한 부상을 당했다. 줄리언 에들먼은 발이 부러져 최소한 6주 이상 경기 출전이 어렵고 무릎 인대를 다친 디온 루이스는 내년 시즌까지 경기장에서 볼 수 없다. 아론 답슨(발목), 대니 아멘돌라(무릎), 키산 마틴(햄스트링) 등의 선수 모두 다음 주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 몸에 이상이 없는 선수는 브랜드 라펠과 크리스 하퍼 두 명뿐이다. 그나마 하퍼는 연습생 신분에서 최근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는 기회를 얻은 선수다.

라펠은 “계속되는 부상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며 “지금 남아 있

는 선수들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규 시즌을 마칠 때까지 남아 있는 선수들이 버텨주면 에들먼 같은 선수는 플레이오프 때 다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패트리어츠가 12주차에 상대할 브롱코스는 NFL에서 패스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다. 브롱코스는 상대 팀에게 가장 적은 패싱 야드(경기당 191야드)를 허용하고 있고 가장 적은 패싱 터치다운(8개)을 허용하고 있다. 브롱코스를 상대하는 팀의 쿼터백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쿼터백 레이팅(74.2)을 기록하고 있다.

브롱코스는 엘리트 코너백 아킵 탈립과 크리스 해리스의 조합으로 상대 팀의 패스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브롱코스는 패스에 대한 수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패스 러시도 수준급이다.

브롱코스는 NFL에서 가장 많은 32개의 색을 기록 중이다. NFL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 아론 로저스도 7주차에 브롱코스를 만나 자신의 역대 프로 경기 중 가장 낮은 77패싱 야드를 기록했다. 이날 로저스는 3번 색을 당했다.

아멘돌라의 출전 여부가 브롱코스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받아 왔던 줄리언 에들먼은 발을 다쳐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와의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주 빌스와 경기에서 아멘돌라가 무릎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9번의 패스 리셉션과 117패싱 야드를 기록했다.

에들먼과 루이스가 출전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 아멘돌라의 존재는 중요하다. 아멘돌라가 있을 때 패트리어츠는 서드 다운 상황에서 10번 중 4번을 성공 시켰다. 그러나 아멘돌라가 없을 때 패트리어츠는 서드 다운에서 4번 모두 실패했다.

패트리어츠의 타이트엔드 랍 그롱

코스키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물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한다” 며 “선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감독이 어떤 것을 구상하던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LPGA 내년엔 '2년차 돌풍' 예고...세영·효주·민지·하나 등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박인비(27·KB금융)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한국이름 고보경)의 견고한 '양강 체제'로 막을 내렸다.

둘은 내년에도 투어의 최강자 자리를 놓고 팽팽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시즌 이들 '빅2'는 어느 때보다 거센 '2년차 돌풍'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내년 LPGA투어에 '2년차 경계령'이 예상되는 것은 올해 워낙 출중한 신인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LPGA 투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선수 가운데 상당수는 2년차 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했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도 신인 때 '탐색전'을 마치고 투어 2년째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내년에 불어닥칠 2년차 바람은 올해 신인왕 김세영(22·미래에셋)이 이끈다.

김세영은 이번 시즌 박인비, 리디아 고와 함께 '빅3'로 묶여도 될 만큼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볼과 7만3천367달러 차이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 상금랭킹 3위를 내줘 상금 4위(182만달러)로 시즌을 마친 김세영은 다승 순위에서는 리디아 고, 박인비(이상 5승)에 이어 당당히 3위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김세영은 리디아 고, 박인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에 가렸지만 김효주(20·롯데) 역시 특급신인다운 성과를 냈다.

한차례 우승과 상금랭킹 11위(92만3천달러), 그리고 평균타수 5위(70.14타) 등 모든 지표에서 김효주는 정상급 선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역대 신인왕 가운데 루키 시즌에 김효주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 선수는 많지 않다.

호주 교포 이민지(19)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민지도 한차례 우승을 거둬 특급 신인의 대열에 합류했고 상금랭킹 16위(82만1천달러)에 평균타수 15위(70.88타)로 상위 랭커의 입지를 다졌다.

우승 맛은 보지 못했지만 준우승 4차례로 가능성을 보인 장하나(23·



박인비가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왼쪽), 리디아 고가 2015시즌 올해의 선수에 등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다



비씨카드)도 내년엔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1년 동안 투어 생활과 대륙 대항전 솔하임컵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엘리슨 리(20)도 2016년 시즌에 눈여겨보아야 할 '2년차'로 꼽힌다.

LPGA투어 전문가들은 내년에 주목할 '2년차'로 10대 스타 브룩 헨더

슨(18·캐나다)을 지목하고 있다.

헨더슨의 올해 공식 기록은 상금랭킹 90위(10만294달러)에 신인왕 포인트 13위이다.

하지만 이는 헨더슨의 진짜 실력이 아니다. 헨더슨은 지난 8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 이후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됐다.

헨더슨은 비회원 신분으로 10차례

대회에 출전해 한차례 우승과 3위 한 번, 5위 두차례를 차지했다.

이밖에 올해 투어에 적응이 늦어 신통치 않은 성적에 그쳤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백규정(20·CJ오쇼핑)도 내년 시즌에는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khoon@yna.co.kr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톨, 런드롬(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생선가게 연매상 \$500,000 변화한 플라자 성업중인 가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롬,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시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